

II. 고 조 선

1. 고조선의 국가형성
2. 고조선의 변천
3.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 경제

II. 고조선

1. 고조선의 국가형성

1) 고조선의 건국신화

古朝鮮은 우리 민족사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학계뿐 아니라 일반의 관심이 지대한 분야로서 이에 관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고조선의 출현시기·강역·주민구성·정치사회적 성격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같은 고조선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문헌을 충실하게 이용한 연구방법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와 신화를 혼용하였다는가, 역사적 측면의 인정이 소홀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질 수 있으나, 고조선에 관한 자료를 고증·비판하였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문헌은 문헌대로 이해하면서 考古學이나 人類學 등 인접 학문의 성과를 도입·접목시키려는 연구방법이었다. 이것은 前者의 연구성과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전자의 처지에서 보면 견해 차이가 있었고, 때문에 때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¹⁾

문헌 위주의 연구방법은 주로 조선 후기 實學者들에게서 그 맥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계승한 民族主義 史學者 및 일제 강점기의 日本人學者와 그들과 연관된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헌과 고고학 등을 접목시키려는 연구방법은 해방 이후 남북한학계가 각각 기왕의 연구전통을 이어받아 새롭게 축적된 고고학적 성과를 이용하면서 고조선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과

1) 金貞培, 〈古朝鮮의 再認識〉(《韓國史論》 14, 國史編纂委員會, 1984;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 出版部, 1986), 4쪽.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북한학계는 1960년대 이후 고조선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존 문헌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나름의 고고학적 연구결과를 접목시켜 고조선의 중심지를 遼東地域에 설정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檀君陵을 평양 주변에서 발견하였다는 발표를²⁾ 통해 종래의 견해를 바꾸었는데 향후의 입장정리가 주목된다.

우리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문화적 複合性을 주목하여 고조선이 문화 단계별로 성격을 달리하는 사회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정치발전 형태에 대한 인류학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³⁾ 특히 1980년대 이후 고조선의 강역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최근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⁴⁾ 이는 북한학계의 입장이 일부 수용되고 중국학계의 요동·요서 등지의 고고학적 발굴성고가 국내학계에 전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⁵⁾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고조선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이해하거나, 그러한 이해방식에 또다른 미화작업을 가할 때 고조선의 역사는 물론 한국사의 전체 흐름에 대한 올바른 歷史像이 부각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檀君朝鮮이나 이른바 箕子朝鮮 그리고 이와 연결된 衛滿朝鮮을 정도 이상으로 내용을 축약하는 것 역시 바른 연구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안의 고고학의 성과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고학이 쌓아 놓은 업적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보다 긍정적인 역사해석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조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는냐에 따라 이 시대의 성격과

2) 사회과학원, 《단군릉 발굴 학술보고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3) 金貞培, 〈古朝鮮의 住民構成과 文化的 複合〉(《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出版部, 1973).

4) 徐榮洙,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韓國史 市民講座》2, 1988).

盧泰敦,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韓國史論》23, 서울대, 1990).

5) 李基東, 〈北韓에서의 古朝鮮 研究〉(《韓國史 市民講座》2, 1988), 89~108쪽.

權五榮, 〈古朝鮮研究의 動向과 그 內容〉(《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閣, 1991), 25~70쪽.

趙法鍾, 〈北韓의 古朝鮮史 認識體系에 對한 考察〉(《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1,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138~157쪽.

역사의 흐름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즉 고조선의 존재시기와 시대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이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은 靑銅器文化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일정 시기는 청동기문화를 향유하였다고 파악되지만, 단순히 고조선과 청동기문화의 단계만을 연결시키는 것은 再考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청동기시대 초거나 그 이전 단계의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고고학만이 아니라 문헌이나 고대사의 입장에서라도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古朝鮮’이라는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측 사료에서는 ‘朝鮮’이라는 표현이 시종 유지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의 전통 史書에서는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조선이라는 표현은 《三國遺事》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즉 紀異篇의 고조선條에 檀君朝鮮과 箕子朝鮮을 함께 서술하고 위만조선조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한편 《帝王韻紀》에서는 前朝鮮이라는 항목에서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後朝鮮 항목에서 기자조선을 언급하여 후속하는 衛滿朝鮮과 함께 三朝鮮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사서의 서술상의 차이는 이후 학자들에게 고조선으로 망라되는 역사체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견해차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고조선을 단군·기자·위만조선이 모두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견해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서술되어 있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으로만 보는 견해,⁶⁾ 또는 단군조선만으로 한정하여 보고자 하는 견해⁷⁾ 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고조선이라는 표현에만 한정한다면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고조선은 넓은 의미에서 위만조선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⁸⁾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3단계로

6) 金貞培, 앞의 책(1986), 9쪽.

7) 李基白, 〈古朝鮮의 國家형성〉(《韓國史 市民講座》2, 1988), 2쪽.

8) 《三國遺事》古朝鮮條에서는 檀君의 建國神話와 箕子에 대해서만 신고 있으므로 고조선에 衛滿까지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온 것처럼 후대의 조선과 구별하여 고조선이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아직 조선이 건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구분하여 보는 전통적 이해방식을 받아들여 각각의 역사체를 포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먼저 중국측 기록인 《史記》朝鮮傳을 주석한 《史記集解》에서는 3세기경의 魏나라 張晏의 견해를 인용하여 조선에는 濕水·洌水·汕水 3개의 江이 있는데 이들이 합쳐져서 洌水가 되었으며 樂浪과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 강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하였다.⁹⁾ 또 《山海經》의 註釋者인 4세기 초의 郭璞은 “조선은 遼東에 있던 낙랑과 동의어”라고 하였다.¹⁰⁾ 이같이 중국의 사서류에 나타나 있는 조선의 명칭은 지리적 위치가 중심이 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의 전통 역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동쪽 끝에 있어 해가 뜨는 지역이므로 조선이라 불렀다”고 하였으며,¹¹⁾ 《東史綱目》에서는 “鮮卑의 동쪽에 있으므로 조선이라 칭하였다”고 하였다. 이같이 우리의 전통 역사서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요소와 함께 종족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申采浩와¹²⁾ 鄭寅普는¹³⁾ 조선을 ‘같은 소속’을 의미하는 滿洲語의 珠申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⁴⁾ 그리고 고대 조선족은 태양숭배 신앙을 가지고 이동하면

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고조선은 일단 단군과 기자조선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위만조선보다 더 오랜 조선이라는 뜻에서 고조선이라고 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고조선조는 단군과 기자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내용면에서 檀君神話의 서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하튼 고조선조에는 단군과 기자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으므로 고조선에 관한 조점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9) 《史記》 권 115, 列傳 55, 朝鮮.

10) 《山海經》 권 12, 海內北經 및 권 18, 海內經.

1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51, 平壤府 郡名.

12) 申采浩, 《朝鮮上古文化史》(《丹齋申采浩全集》 권 上, 1972), 351~369쪽.

13) 鄭寅普, 《朝鮮史研究》(서울신문사, 1947), 51~52쪽.

14) 《滿洲源流考》에서는 원래 滿洲語로 ‘所屬’을 의미하는 말이 珠申이라고 하였는데 肅愼은 주신이 轉音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소속’을 ‘管境’과 뜻이 통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주신은 곧 국호의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옛 문헌에 보이는 朝鮮과 肅愼은 동일한 뜻을 지닌 다른 호칭이었으므로 결국 조선의 명칭은 주신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 도처에 ‘뽕’이나 ‘새’라는 지명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朝를 ‘뽕’으로 鮮을 ‘새’로 해석하여 조선을 ‘뽕새’로 본 견해도 있다.¹⁵⁾ 한편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阿斯達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대목에 주목하여 아사달과 조선이 同意語일 것으로 보고, ‘조선’은 곧 고대 조선의 단어 ‘아사달’의 중국식 모사라고 한 견해도 있다.¹⁶⁾ 한편 북한학계는 기본적으로 장안의 설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습수·열수·산수 등의 명칭으로부터 肅愼·息愼·稷愼 등 숙신족의 여러 명칭이 배태되었다고 보면서, 조선은 결국 위의 水名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숙신이라는 종족명칭을 통하여 온 것이라고 하였다.¹⁷⁾

이같이 조선이라는 명칭에 대한 여러 견해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명칭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종족적 특성을 반영한 種族名으로 파악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종족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 견해는 江과의 관련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당시 가장 대표적인 지형적 특성으로서 강의 존재가 중시되었겠지만, 특히 조선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세 개의 강이 거론되고 있음은 고조선의 위치 비정에 특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다.

고조선의 단군신화가 실려 있는 현존 자료로는 고려시대 一然의 《三國遺事》¹⁸⁾와 李承休의 《帝王韻紀》¹⁹⁾ 및 조선 초기의 《世宗實錄地理志》,²⁰⁾ 權擘

15) 梁柱東, 《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57), 380~391쪽.

16) 李丙燾, 〈檀君說話의 解釋과 阿斯達問題〉(《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2, 1955;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7~43쪽.

17) 리지린, 《고조선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64), 11~20쪽.

18) 《삼국유사》의 편찬 연대는 일연(1206~1289)이 만년에 麟角寺에서 저술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70세 중반경인 1280년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崔南善 編, 《新訂 三國遺事》(三中堂書店, 1941).

이상호 역, 《삼국유사》(과학원 출판사, 1960).

金相鉉, 〈三國遺事の 書誌學的 考察〉(《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7~28쪽.

19) 《帝王韻紀》의 편찬연대는 李承休의 自序에 至元 24년(1287)으로 나타나 있어 《삼국유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世宗實錄地理志》는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것으로 平壤府條에도 단군신화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帝王韻紀》의 내용과 유사하다.

의 《應製詩註》가²¹⁾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 가운데서 고조선에 대한 기술은 《삼국유사》의 기록이 보다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실려있는 단군신화는 桓雄이 熊女와 혼인하여 檀君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제왕운기》에는 웅녀가 나오지 않고 孫女가 人身이 되게 하여 檀樹神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후자는 웅녀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고려시대의 두 기록에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내용은 조선 초에 편찬된 사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세종실록지리지》는 《삼국유사》를, 《응제시주》는 《제왕운기》의 기사를 각기 채록하고 있다.²²⁾

먼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는 그 내용이 〈魏書〉와 〈古記〉라는 데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檀君王儉이 있었다. 阿斯達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나라 이름을 朝鮮이라 하였는데 이는 堯임금과 같은 시대이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古朝鮮).

《삼국유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서〉라는 책은 중국의 삼국시대에 존재한 魏에 관한 역사책으로서 위나라 때부터 2000년 전이라는 연대를 감안할 때, 적어도 기원전 1700~1800년 전으로 단군의 존재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군을 중국의 전설적인 왕인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고 함으로써 그 연대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기록에서는 요임금의 존재시기를 전제로 하여 단군왕검을 부각시켰고, 지리적 위치로서 아사달이라는 구체적 지명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위서〉라는 기록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현존하는 위나라 관련 역사서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

21) 《應製詩註》는 조선 초기의 權近(1352~1409)이 지은 시에 손자인 權曄(1416~1465)이 주석을 가한 책으로서 〈古記〉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22) 金廷鶴, 〈古朝鮮의 靑銅器文化〉(《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8), 49쪽.

적되었다.²³⁾ 그러나 <위서>라는 사서는 중국의 여러 사서들 가운데 매우 다양한 異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이름만 전해지는 <위서>라는 서명이 여러 종류인 점을 감안할 때, 단지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허구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²⁴⁾

한편 <고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용되고 있다.

古記에 이르기를 옛날 桓因의 庶子 桓雄이 자주 천하에 뜻이 있어 인간세상을 지망하였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三危 태백산을 내려다 보니 널리 인간들에게 큰 이익을 줄만 하였다. 이에 天符印 세 개를 주어 가져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三千을 이끌고 太伯山 꼭대기에 있는 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그 곳을 神市라 하였으니 이가 바로 환웅천왕이다. 그는 風伯과 雨師와 雲師를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살면서 교화를 베풀었다.

이 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神雄에게 기도하여 사람되기를 원하였다. 이 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햇빛을 백일 동안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 먹고 21일 동안 삼가니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능히 삼가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갓기를 빌었다. 환웅이 잠시 변하여 혼인하였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檀君王儉이라 하였다. 그는 요임금이 즉위한 50년 庚寅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古朝鮮).

이와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제왕운기》는 <本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本紀에 이르기를 上帝인 桓因에게 서자인 雄이 있었다. …(아버지가) 일러 말하기를 “내려가 三危太伯에 이르러 널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였다. 이 까닭에 웅이 天符印 3개를 받고 鬼 3천을 거느리고 太白山 꼭대기 神壇樹 아래에 내려오니 이를 일러 檀雄天王이라 하였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고

23) 今西龍, <檀君考>(《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8~9쪽.

24) 崔南善, <三國遺事解題>(《啓明》 16, 1927; 《新訂 三國遺事》, 三中堂書店, 1941, 42~48쪽).

李丙燾, 앞의 책, 28쪽.

사람의 몸으로 되게 하고 檀樹神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이 檀君이었다. 朝鮮의 지경에 웅거하여 왕이 되었다. 이 까닭에 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와 貊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 1,038년을 다스리고 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이 되니 죽지 않기 때문이다(《帝王韻紀》 권 下).

이같이 단군신화를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각각 전대의 문헌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즉 삼국유사는 〈고기〉를, 제왕운기는 〈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신화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3세기 당시의 고려에는 이미 단군신화에 대한 기록으로서 〈고기〉로 지칭된 것과, 〈본기〉로 불리지는 것 등 두 가지 종류가 병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명칭과 내용의 상이에 관해서는 《삼국사기》에 앞서 존재한 《舊三國史》와 〈고기〉의 성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사서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²⁵⁾ 있으나 일단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⁶⁾ 또한 〈고기〉의 단군관련 기사가 여러 기록 가운데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단군신화가 실려 있던 고기는 바로 〈三韓古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²⁷⁾

이상에서 보았듯이 단군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두 기록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비슷하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단군을 표현하는 데도 《삼국유사》에서는 제단 ‘壇’자로 壇君을 표기하고 있는 데 비해, 《제왕운기》에서는 박달나무 ‘檀’자로 檀君이라 표기하고 있다. 일반

25) 〈고기〉와 《구삼국사》가 동일하다는 견해는 김부식의 〈進三國史記表〉에 〈고기〉를 인용하였다는 대목과, 이규보의 《東明王篇》序에 김부식이 《구삼국사》를 축약하여 《삼국사기》를 찬술하였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다.

김영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역사과학》 2, 1984), 28~31쪽.

鄭求福, 〈고려 초기의 「삼국사」 編纂에 대한 一考〉(《國史館論叢》 45, 國史編纂委員會, 1993), 163쪽.

26) 〈고기〉와 《구삼국사》는 김부식이 구삼국사를 축약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기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삼한고기〉 및 〈해동고기〉를 인용한 것으로 믿어지므로 이들 사서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金貞培, 〈檀君記事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 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63쪽).

27) 金貞培, 위의 글, 173쪽.

李康來, 〈三國遺事 引用 古記의 性格〉(《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193~207쪽.

적으로 학계에서는 후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삼국유사》에는 곰이 변한 熊女가 桓雄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하여, 《제왕운기》에는 환웅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으로 변하게 한 뒤 檀樹神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두 기록이 쓰여진 연대가 10여 년 정도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각각 전거를 달리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삼국유사》가 참고한 <고기>가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제왕운기》가 참고한 <본기>의 내용은 보다 후대의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즉 웅녀의 존재를 강조하는 내용과 이를 환웅의 손녀로 바꾸어 놓은 것은 儒家的 觀念에 의해 분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학계에서는 여러 자료들 가운데에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중시하였지만 여기에 기술된 檀君神話에 대해서 비판이²⁸⁾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또는 20세기 초의 기록이라고 하는 《揆園史話》는 《삼국유사》의 단군에 관한 기록이 원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⁹⁾

이같은 단군신화에 대한 기왕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崔南善은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에 주목하여 이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토테미즘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특히 熊母의 존재를 중시하여 이를 母系的 사실의 투영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단군의 어원을 巫인 ‘당굴’에서 찾아 단군은 즉 事天者를 뜻하며, 王儉은 왕호 특히 巫君의 칭위라고 하여 檀君王儉이 天君 또는 무군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³⁰⁾ 이같은 최남선의 견해는 韓民族의 畵사상과 그 문화의 전과 범위를 논한 그의 不咸文化論과³¹⁾ 관련

28) 北崖, 《揆園史話》.

29) 단군관련 기사로서 대표적인 제야사서인 《桓檀古記》, 《檀奇古史》 등의 서적은 후대의 위작이란 사실에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揆園史話》의 경우 道家類 사서로서 조선 숙종년간의 저술로 파악하는 견해와 20세기 초의 작품이라는 견해가 병립하고 있다.

李相時, 《檀君實史에 대한 문헌고증》(가나출판사, 1987).

趙仁成, 〈揆園史話와 桓檀古記〉(《韓國史 市民講座》2, 1988), 71~88쪽.

30) 崔南善, 〈檀君及其研究〉(《朝鮮及朝鮮民族》1, 1927; 李基白 編, 《檀君神話論集》, 새문출판社, 1990, 14~19쪽).

31) 崔南善, 〈不咸文化論〉(위의 책).

되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언어적인 풀이가 많지만 당시의 연구수준을 알려 주는 것이다.

申采浩는 고조선을 신·불·말조선, 즉 삼조선으로 구성된 역사체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의 중심 무대가 遼西·遼東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단군신화를 이해하였다. 특히 단군을 삼조선 분립 이전인 신수두를 개창한 영웅적인 대추장이며 종교적으로는 천신인 光明神을 섬기는 존재로 파악하였다.³²⁾ 또한 儒敎와 佛敎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인 郎家思想의 연원을 단군에서 구하고 있다.

한편 산동반도지역에서 발견된 武氏祠堂 畫像石에 나타나 있는 그림내용을 주목하여 이를 단군신화와 연관지어 파악한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화상석에 나오는 그림의 내용이 호랑이로 묘사된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단군신화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며 이는 단군신화가 북방계의 곰의 獸祖神話와 연결된다는 것이다.³³⁾

또한 단군신화는 天神族인 환웅이 地神族인 고마족의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것을 설화화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에 의하면 《삼국유사》의 웅녀를 《제왕운기》에서 환인의 손녀라 고친 것은 동물의 熊자를 피하기 위하여 개작한 것으로 이는 원형을 잃은 설화라고 한다. 또한 단군이라는 표현은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祭政一致時代에는 단군뿐이었으나, 제정이 분리된 후에는 제사단체의 장은 단군이라 하고 정치단체의 장은 왕검이라 하여 각기 맡았던 지역도 달랐던 것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³⁴⁾

그리고 문헌과 인류학의 성과를 연결시킨 연구도 있다. 단군신화를 三神思想의 한 표현으로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태양신화와 토테미즘의 두 계통의 신화가 결합된 것이 단군신화라고 보는 것이다.³⁵⁾ 즉 이 신화는 삼신사상의

32) 申采浩, 《朝鮮上古史》(《丹齋 申采浩全集》 권 上, 1972).

33) 金載元, 《檀君神話의 新研究》(正音社, 1947), 45~49쪽.

한편 이같은 견해에 대해 무씨사당 화상석의 내용이 단군신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金元龍, 〈武梁祠 畫像石과 檀君神話에 대한 再考〉(《考古美術》 146·147, 1980; 《韓國美術史研究》, 一志社, 1987).

34) 李丙燾, 앞의 책, 29~34쪽.

표현으로서 환인은 여신으로서 천제인 태양신이며 그의 아들이 神雄이고 그의 孫이 인신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天孫思想과, 곰과 호랑이에 대한 숭배인 토데미즘이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 단군신화는 환인-웅-천손으로 이어지는 태양신화와 웅녀-단군으로 이어지는 토데미즘의 두 계통의 신화가 합쳐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합은 신화를 달리하는 두 부족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통합되었을 때 두 부족의 始祖神話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이 신화는 고조선의 一部族的 시조신화였던 것인데 삼국통일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식이 고조되어 한민족 전체의 시조신화로 확대되었다고 한다.³⁵⁾

나아가 단군신화 속에서 샤머니즘의 종교적 세계를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토데미즘이라는 사회적 요소도 찾아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단군은 三韓의 天君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천군은 종교적 제사장이었다고 하였다. 환인은 불교의 東方護法神을 나타내는 불교용어이고 이를 오늘날의 하느님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환인은 하늘 위에 있는 광명의 신으로서 이는 태양숭배를 나타내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웅은 巫로서의 기능을 가졌고 王儉을 정치적 통치자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³⁷⁾ 특히 이와 관련하여 箕子朝鮮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단군조선을 곧 고조선으로 파악하면서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성립한 것으로³⁸⁾ 이해하였다. 이것은 문헌의 입장에 선 해석이며 기자조선이 존속한 기간은 고조선이 그대로 자리를 점한다는 시간 관념을 갖고 있다.

이와는 달리 韓民族의 형성과정에서 先住漁獵民인 고아시아인과 後來農耕民인 북몽골인의 두 계통의 동화 내지 교체가 진행되었다는 견해를³⁹⁾ 수용하여, 단군신화에는 한민족의 원형인 韓·濊·貊이 형성되는 과정과 농경민의 등장에 의하여 농경문화가 개시된 것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단군조선은 곰과 범을 상징으로 하는 두 개의 族團이 先住

35) 金廷鶴, 〈檀君說話와 토데미즘〉(《歷史學報》7, 1954).

36) 金廷鶴, 위의 글, 281~287쪽.

37) 李基白, 〈檀君神話의 問題點〉(《增補版 韓國古代史論》, 一潮閣, 1995), 14~15쪽.

38) 李基白, 〈古朝鮮의 諸問題〉(위의 책), 21~29쪽.

39) 金貞培, 앞의 책(1973), 160~209쪽.

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 천제의 아들을 自任하는 어떤 지배자와 족단이 동방으로 이주하여 선주민을 동화 또는 정복하였다고 한다. 단군은 처음에는 고조선지역의 어느 대표적인 족단의 지배자였는데 뒤에는 그 족단의 조상신이 되었고, 그 후의 역사 전개에 따라 단군은 점차 한반도와 만주 방면 주민이 공통으로 섬기는 조상신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나오는 단군은 곰과 범(선주의 어렵민)과 천제의 아들(후래의 농경민) 사이의 동화 내지 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한민족의 직계조상이 형성되는 과정과 우리 역사에서 농경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⁴⁰⁾

그리고 단군관련 기록은 신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군신화의 연대는 후대에 소급하여 놓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고조선의 국가 형성 시기는 고조선지역에 중국계의 이주민이 등장하여 정치적인 자극과 압력을 가하게 된 기원전 12세기 말 전후라고 한다. 또한 고조선의 先住세력은 곰집단으로 표현되고 중국계의 이주민집단은 범집단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곰집단과 관계를 맺은 중국계 이주민집단은 환웅집단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고 이들 환웅집단이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한다.⁴¹⁾ 이같은 인식은 중국계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단군의 성격을 중국과의 관련하에서 설정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세력집단을 고고학적 자료와 연관시켜 일정한 종족집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 견해는 고조선으로 지칭되는 역사체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나누어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단군신화는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인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곰송배를 하던 古아시아族(Paleo-Asiatics)의 일파가 남긴 문화라고 보았다. 즉 단군조선은 신석기시대에 고아시아족의 一種族이 담당한 문화이며, 이른바 기자조선의 주민은 고아시아족이 아니라 알타이계의 無文土器人들이었다고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고조선의 문화가 단일 문화현상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신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의 변환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40) 千寬宇, 〈古朝鮮의 몇가지 問題〉(《韓國上古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7), 121~138쪽.

41) 李鍾旭, 《古朝鮮史研究》(一潮閣, 1993), 67~73쪽.

특히 청동기문화를 담당한 주민들은 중국 사서에 자주 나오는 濊貊族으로서,箕子가 東來한 사실은 믿을 수 없으므로 예맥족이 담당한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箕子朝鮮을 ‘濊貊朝鮮’으로 달리 불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예맥 조선의 문화가 청동기문화로서 이 기간에 주로 支石墓와 石棺墓가 축조되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문화의 영향은 전국시대 이후 조금씩 보이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중국문화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파악하였다. 기자조선에 대하여도 고고학적으로 기자의 동래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자조선을 韓氏朝鮮이라고 하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만조선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철기문화를 수용하였으며 그 지배자와 주민은 巨石文化와 청동기문화를 계승한 濊貊人이 틀림없다고 하였다.⁴²⁾ 이같은 견해는 고조선을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셋으로 나누어 각기 고고학적 자료와 연관시키고 그 종족의 계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단군에 관한 이해는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연관시켜 단군신화가 반영하는 역사상을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즉 단군신화에 나타나 있는 사회상이 고고학적으로 어떠한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군을 중심으로 볼 때 熊女의 존재는 곰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화의 내용을 동북아시아지역과 연결시켜 고아시아족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아시아족은 자신들을 곰의 자손이라고 믿는 시조신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아시아족은 곰숭배사상과 함께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하늘 또는 최고의 샤먼을 지칭하는 명칭인 ‘탱그리’라는 표현은 단군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샤먼의 기능과 관련된 世界木觀念이 단군신화에 神檀樹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하여 단군신화의 내용이 고아시아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신석기문화가 시베리아지역과 연결되는 것이고 시베리아 신석기문화의 담당자가 고아시아족이라는 사실은 단군신화가 신석

42) 金貞培, 앞의 책(1973), 160~209쪽.

기문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단군기원 연대로서 제시되고 있는 ‘唐高 卽位後 50年’이란 기록과도 연관이 된다. 즉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대는 우리의 청동기문화가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고고학계의 견해를 참고할 때, 이 시기는 고고학상으로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므로 단군신화는 신석기문화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단군조선을 보는 시각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일별하여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서는 단군조선은 실재하지 않았던 신화일 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또 단군조선과 고조선이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단군신화를 건국신화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단군조선을 역사적으로 실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세부적으로는 역시 차이가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고조선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역시 전통적인 사료와 해석을 일단 존중하면서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다.

한편 고조선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箕子の 東來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자는 殷代の 賢人으로서 《史記》宋微子世家條와 《尚書大全》에 관련 전설들이 보이는데 은의 마지막 왕인 紂王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자가 은이 멸망하는 시기에 ‘朝鮮’지역으로 망명하였다는 것이 관심의 초점인데, 《漢書》地理志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기자의 조선 교화기사가 그것이다.⁴³⁾ 그러나 이는 중국인의 中華思想에 의한 서술일 뿐이고, 기자의 동래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箕子東來說은 역사적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기자조선은 개아지조선,⁴⁴⁾ 또는 韓氏朝鮮,⁴⁵⁾ 濊貊朝鮮⁴⁶⁾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해 극복된 설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기원전 12세

43) 《漢書》권 28 下, 志 8 下, 地理.

“殷道가 쇠하자 箕子가 朝鮮에 거하여 그 백성에게 禮義, 田蠶, 織作을 가르치고 樂浪朝鮮民에게 犯禁八條를 가르쳤다...”.

44) 崔南善, 《兒時朝鮮》(東洋書院, 1927), 33~36쪽.

45) 李丙燾, 앞의 책, 47~55쪽.

46) 金貞培, 앞의 책(1973), 210~221쪽.

기를 전후한 시기에 중국사회의 경우 殷・周의 교체가 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신석기문화 단계에서 새로운 청동기문화가 개시되면서 濊貊族으로의 種族交替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⁴⁷⁾ 또한 시베리아지역에서는 기원전 13~12세기를 전후하여 유럽종의 안드로노보문화에서 몽골종의 카라수크 청동기문화로 종족과 문화의 변동이 있었다.⁴⁸⁾ 이같은 사실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종족과 문화의 변동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기자동래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시기에 기자의 동래가 있었다고 한 것은 우리 민족사의 전개에서 문화 단계에 하나의 큰 변동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동이족과 그 문화권

우리 나라의 청동기 유물은 琵琶形青銅短劍과 여기서 발전된 細形銅劍 및 銅鏡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러한 유물들은 현재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나타나는 청동단검 등의 유물과 친연성이 있다.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묘제인 石棺墓에서는 劍・鏡・玉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중국의 동북지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⁹⁾ 따라서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구체적 성격과 내용 및 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遼河를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문화와, 朝陽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문화 및 赤峰 등지의 문화와도 비교하여 한반도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고조선의 기반이 된 문화는 청동기문화로서 고조선사회의 발전에 따라 철기문화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의 문화적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청동기문화에서 철기문화로 변천・발전하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조선이 토대를 두고 있는 청동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표적 유적・유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왕의 논의에서

47) 위와 같음.

48)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 1986), 62~64쪽.

49) 金貞培, 〈中國에서 發見되는 우리나라 靑銅遺物の 問題—石棺墓의 劍・鏡・玉을 중심으로—〉(《先史와 古代》1, 韓國古代學會, 1991), 55~66쪽.

중시된 것은 비파형동검이었다. 이와 함께 토기문화로서 美松里式土器와 매장유적으로서 이들 유물을 반출한 묘제 즉 石棺墓・石槨墓・土壙墓 등이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문화현상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고조선의 기반이 된 문화의 하나의 표지유물로서 요하를 경계로 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전역까지 연결되는 支石墓의 분포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조선의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석묘와 비파형동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석묘문화

중국의 지석묘는 주로 遼寧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요동반도가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다. 요동반도의 지석묘는 남으로 大連・金縣・新金・復縣・蓋縣・庄河・岫岩・營口・海城에서부터 북으로는 清原縣・新賓縣・開原縣에 이르는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吉林省의 樺甸縣에도 지석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중국의 지석묘는 남으로는 대련・영구와 丹東지구, 북으로는 길림성의 通化和 길림지역까지 분포되어 있다.⁵⁰⁾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遼河 서쪽의 錦州・阜新・朝陽지구에서는 지석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⁵¹⁾ 향후에 발견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요하 이서에서는 지석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결론은 큰 의미가 있다.⁵²⁾ 이는 곧 요령성 지석묘의 경우 서쪽 한계가 요하에서 멈추고 있다는 뜻이 되며, 이러한 사실은 요령 일대의 지석묘문화는 물론 청동기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지석묘의 존재가 종래 알려져 있던 요동반도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길림지역까지 100기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 또한 동북지역의 청

50) 許玉林, 〈遼東半島石槨之研究〉(《北方文物》3, 1985), 17쪽.

51) 위와 같음.

52) 한편 절강성 일원에서 변형 지석묘(소위 남방식 지석묘)가 40여 기 확인되어 향후의 비교검토가 요망된다.

安志敏, 〈中國東南部の支石墓〉(《第38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5), 102~103쪽.

陳元甫, 〈河姆渡遺蹟 주변의 支石墓遺蹟에 대하여〉(《제7회 韓國古代學會 學術發表》, 1995).

동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요동반도의 지석묘는 전형적인 지석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한반도의 이른바 北方式 지석묘와 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곧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주민이 동일한 문화권에서 생활하였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석묘는 요동반도와 한반도에 걸쳐 살았던 같은 주민이 남긴 유물로서, 동일한 하나의 문화권을 설정케 하는 고고학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석묘는 또한 청동기시대의 주민인 濊貊族의 문화유산으로 이해된다.⁵³⁾

중국어계에서는 돌멘(Dolmen)을 石棚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형태나 구조는 우리의 북방식 지석묘와 비슷한 것이며, 작은 지석이 있는 변형 지석묘도 석봉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러나 지석이 없고 지상에 蓋石만 있는 유형은 우리의 분류와는 달리 蓋石式 지석묘라 하지 않고 ‘太蓋石墓’라 명명하고 있다.⁵⁴⁾ 어쨌든 지석묘가 변화를 거듭하여 석관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묘제의 외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반출되는 유물을 고려하여 역동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추구해야 한다.⁵⁵⁾

요동반도의 지석묘에서 나오는 유물의 양은 한반도의 지석묘와 마찬가지로 매우 적은 편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비파형동검과 같은 표지적인 유물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요동반도지역의 지석묘에서 반출된 유물들은 石斧・紅陶片・石鏃・紡輪 등인데⁵⁶⁾ 이들은 모두 청동기시대

53) 金貞培, 앞의 책(1973), 160~209쪽.

——, 〈韓國和遼東半島의 支石墓〉(《韓國學論文集》4,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1995), 95~105쪽.

54) 許玉林, 앞의 글, 18~19쪽.

——, 《遼東半島石棚》(1994), 66~67쪽.

55) 북한학계에서는 도유호가 지석묘를 전형 지석묘와 변형 지석묘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후 이를 대신하여 유적이 나타난 지명을 따서 沈村型 지석묘(소위 남방식; 변형), 五德型 지석묘(소위 북방식; 전형)로 구분하고 전자에서 후자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침촌형 지석묘는 돌상자무덤 즉, 석관묘에서 기원하였다고 파악하여 우리 학계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석광준,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1979, 1~112쪽). 그러나 지석묘는 전형적인 지석묘에서 변형 지석묘로 발전되었으며 아울러 지하에 묘장이 형성되는 석관묘로 변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金貞培, 앞의 글, 1995, 99쪽 및 金貞培, 〈韓國과 遼東半島의 支石墓〉, 《先史와 古代》7, 1996, 34쪽).

의 유물이며 한반도의 지석묘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지석묘와 요동반도의 지석묘는 전형적인 지석묘의 경우 반출하는 유물들로 보아 거의 동일한 시기의 유적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지석묘가 뒤에 변형 지석묘 등으로 변화·발전되어 간 것처럼 중국도 대개석묘 등으로 변화를 해나간 것은 이 역시 같은 문화권 내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뒤이어 青銅短劍 등이 공통의 문화요소로 등장하는 것과 석관묘가 공통의 묘제로 자리잡는 것도⁵⁷⁾ 한반도와 요동반도의 청동기문화가 동일한 권역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요동반도 및 한반도의 거대 지석묘로 구분되는 것은 대부분 평지보다 20~30m 높은 산등성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지석묘는 요동반도 남부의 析木城 石棚山 지석묘들과 함께 渤海灣을 끼고 環狀의인 배열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이 지역이 동일한 문화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지역은 東夷族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이곳의 지석묘는 구체적으로 濊貊族이 남긴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석묘의 분포가 요하를 넘지 않는 범위였다는 사실은 그 시기에 넓은 의미에서 고조선의 문화가 일정한 지역에서 공통의 청동기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형 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 등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에 후속되는 석관묘에서 검·경·옥을 위시한 각종 청동유물들이 반출되고 있다. 석관묘는 변형 지석묘의 지하구조로부터 등장하였는데, 한국과 중국 동북지방에 분포하는 석관묘에서 공통적으로 청동단검 등의 유물이 반출된다는 것은 지석묘 단계보다 석관묘문화가 지역적으로 더 확산·발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석관묘가 요하 서쪽의 요서지방에서도 보인다는 것은 지석묘의 분포가 요하 동쪽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과는 다른 점이다. 이는 지석묘의 하부구조로부터 발생한 석관묘문화가 주위의 새로운 문화와 융합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예맥족이 지석묘문화를 형성시키고 석관묘문화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한국에서 나타나

56) 宋延英, 〈遼東半島의石棚文化－析木城石棚－〉(《社會科學輯刊》5, 1987), 72~73쪽.
許玉林·許明綱, 〈遼東半島石棚綜述〉(《遼寧大學學報》1, 1981), 10~17쪽.

57) 金貞培, 앞의 글(1991), 55~66쪽.

는 고고학 자료로 보아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할 때 지석묘에서 석관묘로 이행하는 시기는 바로 요하라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 지역이 예맥족의 활동영역에 속하므로 이같은 변화 양상은 고조선의 단계적인 변천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지석묘는 청동기문화의 대표적인 묘제로서 특히 당시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지석묘가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君長社會의 지배자가 일정 지역을 영유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징표이다.

(2) 비파형청동단검문화

고조선의 고고학적 문화성격을 설정함에 있어 지석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논거로 제시된 것은 琵琶形青銅短劍⁵⁸⁾으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이다. 비파형동검은 발생시기와 분포양상 및 담당종족의 성격이 고조선문화의 내용과 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로 파악되고 있다. 즉 지석묘에서 발전된 석관묘와 석곽묘 계통의 분묘에서 주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이들 묘제가 지석묘를 계승하여 발전된 형태라는 점과, 대부분의 지역이 이들 지석묘문화와 중첩되며 일부 지역적 확장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遼東과 遼西를 포괄하는 요령지역 및 內蒙古와 연결되는 지역, 그리고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殷·周青銅器文化와는 구별되는 비파형청동단검문화로 바뀌게 된다.⁵⁹⁾ 이 문화는 남부 시베리아 청동기문화의 영향⁶⁰⁾ 아래 요하를 중심으로 발전된 문화로서 요서지역의 夏家店 上層文化⁶¹⁾,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 길림지역의 西團山文化,⁶²⁾ 한반도의 청

58) 이 청동단검은 만주식 동검, 요령식 동검, 곡인검 등으로 불려지던 것이다.

59) 林 沅, 〈中國東北系銅劍初論〉(《考古學報》80-2, 1980).

內蒙古지역 青銅器文化와의 관련성은 차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李康承, 〈遼寧地方의 青銅器文化〉, 《韓國考古學報》5, 1979).

60) 金貞培, 앞의 책(1973), 170~209쪽.

61) 靳楓毅,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考古學報》87-2, 1987).

朱 泓, 〈夏家店上層文化居民的種族類型及相關問題〉(《遼海文物學刊》, 遼寧省博物館四十周年紀念特刊, 1989-1).

62) 李健才, 〈關於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社會科學戰線》85-2, 1985).

동기문화 등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였다.⁶³⁾

하가점 상층문화로 대표되는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은·주청동기문화와 연결되면서도 遊牧과 定住農業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주거 형태에서는 堅穴住居와 지상가옥 형태를 보이며 토기에 있어서도 중국계의 三足土器 형식인 鼎·鬲과 함께 북방 유목민 계통의 銅器와 動物形狀 및 북방식 동검 등의 양식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주요 묘제는 土壙堅穴墓와 석곽묘 두 종류인데 석곽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⁶⁴⁾ 이 문화는 요서지방과 내몽고자치구의 騷奧達盟 및 河北省 일부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大凌河·小凌河유역과 북으로는 老哈河·西喇木倫河유역, 서남으로는 灤河유역을 망라하며 동으로는 요하를 경계로 하고 있다.⁶⁵⁾ 대부분의 유적이 산지와 평야가 연결되는 丘陵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화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東胡 계통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중국학계의 지배적 입장이라는 하지만,⁶⁶⁾ 춘추시대나 전국시대의 동호족은 현재의 동몽고지방에서 만주지방의 서북부에 걸쳐 있었으며 현재의 요령지방까지 남하하지는 못하였다⁶⁷⁾는 사실과,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성격이 고조선의 청동기문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조선 계통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지역에 비해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유적은 新金

63)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下)(《考古學報》82-4·83-1, 1982·1983).

박진옥,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64) 靳楓毅, 위의 글.

朱 泓, 앞의 글.

황기덕, 〈료서지방 비파형단검문화의 성격〉(《조선고고연구》86-1, 1986).

65) 대표적 유적은 적봉 홍산후, 하가점 상층, 영성 남산근, 대릉하유역의 조양 십이대영자, 사아보, 금서오금당, 심양 정가와자 등지이다.

66) 秋山進午,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文化の樣相〉(《考古學雜誌》53-4·54-1·4, 1968·1969).

靳楓毅, 앞의 글(1982·1983).

尹武炳, 〈遼寧地方の 青銅器文化〉(《韓國上古史의 諸問題》, 1987).

67) 金廷鶴, 《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 1972).

縣의 雙房類型으로 석관묘와 지석묘가 대표 유적이다. 이 유형의 분포는 旅大지구로부터 요하 지류인 渾河 북안에 이르고 있는데 비파형동검과 銅斧를 표지유물로 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미송리형토기로 대표되는 토기문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⁶⁸⁾ 二道河子 석관묘에서는 銅斧와 銅鏃鎔范이 출토되었고 崗上和 樓上유적은 積石墓群으로서 火葬과 多人葬이라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학계는 이 다인장을 殉葬으로 파악하여 고조선의 노예국가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다. 이 문화의 주인공을 東夷族 또는 濊貊 등으로 파악하여 고조선계로 이해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西團山文化는 길림·長春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요령의 撫順까지 포함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주로 석관묘와 甕棺墓·토광묘 등의 묘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초기 유적은 영길 星星哨·西團山·驪達溝지역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초기 형태의 비파형동검은 많지 않은 편이다. 중국학계의 경우 서단산문화를 肅慎族과 연결짓고 있으며 북한학계에서는 夫餘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은 현재 그 출토예가 약 54개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석관묘·지석묘·토광묘 등의 분묘에서 주로 발견되었다.⁶⁹⁾ 관련 유물은 동검·銅鉞·동촉과 동부 등이며 동검의 경우 磨製石劍·石鏃·石斧 등의 석기와 함께 출토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파형동검은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이 양과 내용의 면에서 요동이나 길림·장춘지구보다 풍부한 것으로 보아 한반도가 주요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지역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제품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⁷⁰⁾

68) 鄭漢德, 〈美松里型土器の生成〉(《東北アジア考古研究會二十周年紀念論文集》, 1990).
——, 〈紀元前 2千年期 後期 및 1千年期初 遼寧東部地方의 考古學〉(《先史와 古代》 5, 1993).

미송리형 토기는 평북 의주군 미송리 동굴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로 기형은 표주박형으로 긴목에 평평한 바닥을 특징으로 한다(사회과학원 출판사, 〈미송리형호〉, 《고고민속》 1967-2).

69) 李健茂, 〈韓國의 青銅器文化〉(《特別展 韓國의 青銅器文化》, 國立中央博物館, 1992), 126~132쪽.

70) 岡内三眞, 〈東北アジアにおける青銅器製作技術〉(《古代東アジアの青銅製作技術の研究》, 1990), 627쪽.

〈표〉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유물 출토 상황

유물 지역	청동용기	청동무기류	청동공구류	청동장식품	청동거마구
요서	鼎, 鬲, 尊, 卣, 簋, 盤, 簠, 罐, 豆	劍, 矛, 戈, 鏃, 鉞, 甲, 胄	斧, 刀子, 鑿	泡, 多鈕鏡, 帶 鉤, 銅飾	鐮, 銜, 鈴, 鏡形 飾, 車軸頭
요동		劍, 矛, 戈, 鏃	斧, 刀子, 鑿, 錐, 鈞針	泡, 多鈕鏡, 釧, 銅飾	鐮, 銜, 鏡形飾, 喇叭形銅器
길림·장춘		劍, 矛, 鏃	斧, 刀子	多鈕鏡	
한반도		劍, 矛, 戈, 鏃	斧, 刀子, 鑿, 錐, 鈞針	泡, 多鈕鏡, 銅 飾, 異形銅器	圓盤形銅器, 喇叭 形銅器, 車軸頭

비파형청동단검문화의 이같은 지역적 분포는 출현시기와 발원지에 관한 논란을 가져왔다. 즉 청동기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동검에 대해서는 그 문화의 발원지와 중심지가 어디이며 그 창조자와 담당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북한학계에서는 비파형동검의 분포범위와 문화적 특징에 따라 요동 및 서북조선지방·요서지방·길림 및 장춘지방의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요동지방의 청동단검문화는 기원전 12세기경, 길림·장춘은 기원전 11세기경, 요서지역은 기원전 9세기 중엽경 등으로 편년하여 요동지역의 雙房—二道河子형식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비파형청동단검문화는 요동지역으로부터 요서지역으로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문화를 고대 조선족의 문화로 파악하여 요서지방과 요동지방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도 인정하고 있다. 또 요동지방의 문화적 특징으로 비파형동검·선형동부 및 미송리식토기를 들고 이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이해하였다.⁷¹⁾

이에 대해 중국학계에서는 南山根—十二臺營子형식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이 문화가 요서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청동단검의 편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각기 다른 견해가 제기되기

71) 박진욱, 앞의 글, 42~58쪽.

도 했으나⁷²⁾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요서지구가 기원전 9세기경, 요동지구가 기원전 7세기, 길림·장춘지구는 기원전 5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族屬문제에 있어 요서지역의 문화를 東胡族의 문화로, 요동지역을 東夷族의 문화로 보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영역 및 중심지문제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북한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중국학계의 견해를 수용하는 등으로 여러 의견이 엇갈려 있다. 그러나 비파형동검문화는 중국의 청동기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로서 요하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분포하며 가장 초기적 형식이 요동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⁷³⁾ 또 그 기반이 되는 문화로서 지식묘문화의 범위가 이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식묘가 석관묘로 발전되었다는 사실과 이들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식묘로 대표되는 초기 청동기문화의 지속적 발전이 비파형동검을 반출하는 석관묘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들 문화의 영역이 요서·길림·한반도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濊·貊·韓으로 대변되는 고대 한민족의 문화범주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영역확정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나타났고, 그같은 전후 과정이 ‘箕子傳説’ 및 《管子》를 비롯한 先秦文獻 등에 나타나기 시작한 고조선 관련기사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에는 청동유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해서⁷⁴⁾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내용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비파형동검 및 동모와 세형동검 등에 대한 납의 同位元素比에 의한 분석 결과, 청동 원료의 원산지로서

72) 林 沅, 앞의 글.

霍德芳,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考古學報》88-3, 1988).

霍德芳의 연구는 1980년 林沅이 제기한 曲刃短劍의 遼東起源說을 보완한 것으로 중국학계의 遼西起源說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73) 霍德芳, 위의 글.

박진욱, 〈고조선의 성립에 대하여〉(《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연구》, 교육도서출판사, 1992), 3~8쪽.

74) 崔 炷·金秀哲·金貞培, 〈韓國의 細形銅劍 및 銅鈴의 金屬學的 考察과 同位元素比法에 의한 原料產地 推定〉(《先史와 古代》3, 1992), 189~213쪽.

崔 炷, 〈슴베에 홈이 있는 琵琶形銅劍 및 琵琶形銅鐙의 國産에 대하여〉(《先史와 古代》7, 1996).

요령지방과의 연계성이 확인되고⁷⁵⁾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파형동검이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⁷⁶⁾ 아직까지는 전체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파형동검의 경우 솜베에 홈이 있는 동검을 납의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여 남한·북한·요령성·길림성 및 중국 남부와 북부 등지의 광석의 동위원소비와 비교분석한 결과, 검토 대상이었던 한반도 출토유물은 모두 남한지역의 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지역의 銅과 朱錫을 사용한 현지 제조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⁷⁷⁾ 또한 납 동위원소비의 수치는 일본 연구 자료와도 비교되는데⁷⁸⁾ 검토 대상인 세형동검 2례는 후대 자료이기는 하지만 경북 연화광산의 광석을 썼을 가능성이 크며, 세형동검 1례와 銅鈴은 중국 북부산으로서 요령성 청성자광산의 납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요령성산임을 알 수 있다.⁷⁹⁾ 이같은 사실은 한반도의 비파형동검문화가 단지 비파형동검문화의 유물 확산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자체의 생산기술과 원료조달을 위한 광산까지 확보한 단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고조선의 주민과 예맥

우리 민족의 선조로 중국의 사서에 종종 등장하는 예맥문제에 관해서는 문헌 자체에 대한 고증과 해석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⁸⁰⁾ 이들 예맥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우리 민족 형성의 근간이 되었으며

75) 전남지역 출토로 전해지는 세형동검 3개와 동령 1개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세형동검은 Cu 75%, Sn 15%, Pb 10%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및 오르도스 출토의 銅利器와 비교하면 밀접한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 주대 청동기의 경우 Sn이 대개 15%인 것으로 보아 한국 세형동검은 오르도스보다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76) 崔 炆, 앞의 글, 202쪽.

77) 위와 같음.

78) 馬淵久夫·平尾良光, 《アジア・中近東地域鑛床鉛の鉛同位體比システマティクス》(文部省科學研究費 補助金, 一般研究 C, 1984).

79) 金正耀, 〈晚商中原青銅器的鑛料來源〉(第三屆國際科學史會議, 1985).

80) 金庠基, 〈韓·濊·貊移動考〉(《史海》1, 1948; 《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1974, 366쪽).

특히 고조선 주민구성의 중심적 존재라는 점에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문헌에 나타나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최초의 지칭어는 ‘濊貊’·‘濊’·‘貊’ 등으로서 西周 초기부터 중국측 문헌에 보인다. 우리 학계에서는 동북아시아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고아시아족과 알타이어족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청동기문화의 주역으로서 예맥족이 신석기문화의 담당주민이었던 고아시아족을 흡수·통합하는 과정이 우리 민족의 형성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⁸¹⁾ 이에 대해 북한학계는 구석기인의 인골분석 등을 통하여 한민족의 체질적 특징은 한반도와 만주의 구석기시대 사람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후손이 계속 성장하여 한민족을 출현시켰다고 보고 있다.⁸²⁾ 또한 우리 학계에서도 주민 교체에 의한 문화변천이라는 기왕의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⁸³⁾ 한민족의 형성과정에 관한 여러 견해 가운데 한반도 본토기원설에 입각한 단일민족설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기왕의 견해에 대한 일부 비판만으로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는 것 역시 아직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⁸⁴⁾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예맥이라는 표현이 單稱인지 또는 連稱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체로 예와 맥의 연칭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와 요령·길림성 등 현재의 중국 동북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으로서

——, 〈東夷와 淮夷·西戎에 대하여〉(《東方學志》1·2, 1954·1955; 《東方史論叢》서울大 出版部, 1974).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韓國文化史大系》I,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4).

尹武炳, 〈濊貊考〉(《白山學報》1, 1966).

三上次男, 〈東北アジアの古代文化と穢人の民族的性格〉(《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文崇一, 〈濊貊民族文化及其史料〉(《中央研究院 民族學研究所集刊》5, 1958).

金貞培, 〈韓國民族과 濊貊〉(앞의 책, 1973).

81) 金貞培, 앞의 책(1973), 5~45쪽.

——, 〈韓民族의 起源과 國家形成의 諸問題〉(《國史館論叢》1, 1989), 2~14쪽.

金元龍, 앞의 책(1986), 66~67쪽.

8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사람의 기원과 인종적 특징〉(《조선전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307~360쪽.

장우진, 〈조선사람의 기원〉(사회과학출판사, 1989).

83) 李鮮馥, 〈신석기·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韓國古代史論叢》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1), 41~66쪽.

84) 金貞培, 앞의 글(1989), 14쪽.

구체적으로 예족은 길림지역의 송화강 및 嫩江유역과 한반도 일부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맥족은 산둥과 요동 및 한반도에 분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 예·맥은 이후 고조선·부여·고구려 등의 역사체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들 예맥의 분포범위와 존재시기는 고고학상으로 비파형동검문화의 연대 및 범위와 일치하므로 이들 예·맥족이 바로 고조선을 구성한 중심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문헌에서부터 濊와 貊의 표기는 동일음을 취하여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濊는 穢·蕞·穢·藁 등으로, 貊은 貉·貉·栢·沐 등으로 쓰기도 하였다.⁸⁵⁾ 예맥에 관한 사료로 선진문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다음의 자료이다.

커다란 저 韓의 城은 燕의 백성들이 완성시킨 것.

선조들이 받으셨던 명을 받들어 수많은 오랑캐들을 다스리신다.

왕께서는 韓의 侯에게 追와 貊을 하사하셨다.

북쪽의 나라들도 모두 다 받아 그 곳의 우두머리가 되셨다.

(《詩經》大雅 韓奕篇)

이 구절에 보이는 韓은 우리와는 무관한 존재이며 관심의 대상은 追와 貊이다. 추는 ‘되’·‘퇴’의 음을 갖고 있으며 濊의 본음도 ‘회’·‘외’이기 때문이라는 同音異字로 파악된다.⁸⁶⁾ 따라서 ‘추’는 곧 ‘예’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진시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⁸⁷⁾을 보면 예와 맥은 따로 나뉘어져 언급되고 있다.⁸⁸⁾ 그러므로 《詩經》한혁편에 나오는 추와 맥은 바로 예와 맥을 일컫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예맥은 일찍부터 중국에 알려져 있었는데 이 시기 예맥의 지리적 위치는 《管子》에 나타난 사료로 보아 山戎·孤竹·令支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85) 金貞培, 앞의 책(1973), 24쪽.

86) 金庠基, 앞의 책.

87) 《逸周書》王會解 “稷慎大麋 穢人前兒 良夷在子.

《尚書》권 6 “華夏蠻貊 罔不率俾 恭天成命.

《詩經》魯頌篇 “淮類蠻貊”.

88) 金貞培, 앞의 책(1973), 25쪽.

桓公… 북으로 孤竹과 山戎과 濊貊에 이르렀다.

(《管子》小匡篇)

이는 예맥이 燕의 동북인 산융의 동쪽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예맥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呂氏春秋》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맥이 ‘北海之東’으로 언급되어 있어 그 위치가 요령지역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같이 예맥에 관한 초기 기록은 예맥이 종족명칭으로서 고조선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비파형동검문화가 분포한 지역의 주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예맥 관련 명칭이 구체적으로 중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다 음과 같은 漢代 이후의 문헌이다.

- ① 북쪽으로는 烏丸·夫餘와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穢貉·朝鮮·眞番에서 利를 취했다(《史記》권 129, 列傳 69, 貨殖).
- ② 여러 左方의 王將들은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上谷을 거쳐 곧바로 가면 동으로 穢貉·朝鮮과 맞닿는다(《史記》권 110, 列傳 50, 匈奴).
- ③ 彭吳가 예맥조선을 물리치고 滄海郡을 설치하자 燕과 齊의 사이가 모두 들고 일어났다(《漢書》권 24 下, 志 4 下, 食貨).

이들 사료에서는 예맥이 夫餘·朝鮮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穢貉朝鮮’이라는 연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이전까지의 조선이라는 명칭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표현이었는데, 새로이 등장하는 예맥조선이라는 표현은 종족명칭이 부가되었다는 점에서 ‘예맥족이 사는 조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⁸⁹⁾ 즉 예맥은 기본적으로 고조선을 구성하는 중심 종족으로서 중국의 동북방면에 위치한 조선지역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한대에는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예맥의 구체적 위치는 《史記》匈奴列傳에서 흉노가 東胡를 멸망시킨 다음 동쪽에서 예맥조선을 접했다고 한 사실을 통하여 흉노와 인접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後漢書》나 《三國志》 등에 나타나는 예맥은 부여와 고구려의 先住種族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예맥족

89) 도유호, 〈예맥조선에 대하여〉(《문화유산》 6, 1962).

이 지역적으로 각각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장 초기에 요하유역의 세력이 고조선으로 구체적인 정치체를 형성하였고 이후 지역적 분화를 통하여 부여와 고구려 등의 후속 정치체로 이어졌다고 해석되고 있다.

4) 고조선의 건국연대

고조선이 역사적으로 실재한 국가였음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시기에 관한 정확한 연대구명이 요구된다. 고조선의 연대에 관한 실마리는 《三國遺事》에 인용되어 있는 고기록들에서 찾을 수 있다. 고조선조의 〈魏書〉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壇君王儉이 있어 도읍을 阿斯達에 정하고 나라를 개창하여 朝鮮이라 일컬었으니 중국의 高(堯)임금과 같은 때이다”라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古記〉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단군왕검이 唐高(唐堯)가 즉위한 지 50년인 庚寅年에 平壤城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라고 하였다. 먼저 〈위서〉의 연대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서〉가 曹魏시대의 것인지 또는 拓跋魏시대의 사서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연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⁹⁰⁾ 가장 늦은 연대로 잡더라도 기원전 1500년경으로 단군의 연대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고기〉에서는 중국의 三皇五帝 중 하나인 요임금의 재위연대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단군의 연대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一然 자신이 주석을 달아 “당고의 즉위년은 戊辰이니 50년이 되는 해는 丁巳年으로 庚寅은 잘못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요임금이 즉위한 해의 간지는 문헌에 따라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연이 취하고 있는 戊辰說은 《資治通鑑外紀》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90) 曹魏時代는 그 연대가 220~265년이고 拓跋魏時代는 386~534년이다. 한편 이 魏書를 《三國志》 이전에 존재했던 魏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리지린, 앞의 책, 104쪽). 한편 2000년 전이라는 연대를 근거로 〈魏書〉는 기원전 4~2세기 경의 역사로서 구체적으로는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魏滿朝鮮’의 역사를 기록한 국내문헌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丁仲煥,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대하여〉, 《大丘史學》 12·13, 1977).

한편 李承休의 《帝王韻紀》에서도 요의 즉위연대를 무진으로 보고 帝釋天의 손자 단군이 요와 같은 무진년에 즉위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⁹¹⁾ 또 《世宗實錄地理志》平壤府條와 《應制詩註》에도 단군이 중국의 당요와 같은 날 즉위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東國通鑑》에서는 무진년을 당요의 원년이라 하지 않고 25년이라고 하였다.⁹²⁾ 檀紀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고려 恭愍王 10년(1361) 白文寶가 공민왕에게 개혁을 상주하면서 지금이 단군으로부터 3600년이 되어 周元의 기회가 되었음을 강조한 내용에서 볼 수 있다.⁹³⁾ 이상에서 보았듯이 단군 관련 문헌에 나타나 있는 연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원전 2300여 년 전이라는 시대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우리 나라의 史書에 나타나 있는 단군과 관련된 고조선의 연대는 중국 사서에 보이는 고조선의 시대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조선에 관하여 언급한 중국 기록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山海經》과 《관자》를 들 수 있다. 《산해경》의 연대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에 걸친 시대를 포괄하고 있고 《관자》의 내용도 기원전 7세기 것으로 전하지만, 실제 그 편찬 연대는 기원전 5~3세기에 걸쳐 있어 구체적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고조선의 출현시점을 논의하느냐에 따라 연대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래 우리 학계에서는 구체적 정치체가 등장하기 위한 전제요소인 農耕 및 靑銅器의 출현, 즉 청동기문화의 개시연대와 연결시켜 《삼국유사》 등에 나타나 있는 단군 관련 연대를 신화적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면 단군 관련 연대는 단순히 신화 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단군신화의 내용은 한반도의 신석기문화를 담당한 고아시아족의 문화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곰송배적 요소와 아울러 샤먼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단군의 존재는 고아시아족의 문화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비록 구

91) 《제왕운기》에는 단군이 堯 원년 戊辰年에 즉위하여 殷 무정 8년에 퇴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단군의 건국은 기원전 2353년이 된다.

92) 이같은 견해는 西晉 皇甫謐의 唐堯 元年 甲子說에 의거한 것으로 25년은 戊辰이 된다.

93) 《高麗史》권 112, 列傳 25, 白文寶.

체적 정치체로 등장한 단계는 아니지만 단군 관련 연대는 결코 신화적 성격의 그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5)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1) 고조선의 위치문제

고조선의 중심지문제는 고조선과 관련된 여러 논의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조선 후기 實學者들의 역사지리 관련 논고에서 遼東中心說・平壤中心說・移動說 등이 제기된 이후 이를 부연 설명하면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⁹⁴⁾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관련 문헌이 중국측 자료들이 대부분인 데다가 단편적으로 나름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고조선 관련 사료의 성격이 몇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더욱 심해졌으며, 특히 문헌 자체의 기록시기와 대상시기가 서로 다른 데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같은 견해들을 일별하여 관련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대동강중심설

고조선의 중심을 大同江유역에서 찾는 견해는 중국측 학자들과 대부분의 우리 나라 전통 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학자의 견해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水經》에 주석을 가한 《水經注》의 저자 酈道元이다. 역도원은 北魏時代(469~527) 사람으로 북위에 온 고구려 使臣에게 樂浪의 위치가 平壤城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남겨⁹⁵⁾ 고조선 평양중심설의 가장 확실한 근거를 남겨 놓았다. 이같은 견해는 이후 고조선 평양중심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94)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에 대한 기왕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徐榮洙, 앞의 글, 24~36쪽.

趙法鍾, 앞의 글, 138~154쪽.

95) 酈道元, 《水經注》 泃水.

한편 우리 나라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一然의 견해이다. 즉 일연은 단군조선에 관한 서술에서 〈魏書〉 및 〈古記〉를 인용하였는데 관련 지명들에 관한 주석에서 대부분의 지명을 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 비정하였다.⁹⁶⁾ 이는 결국 이같은 인식이 고려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東國通鑑》이나 《東國輿地勝覽》⁹⁷⁾에서도 고조선의 중심지는 鴨綠江 이남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후 조선 중기의 대표적 지리서인 韓百謙의 《東國地理誌》에서는 고조선과 三韓이 漢江을 경계로 존재하였다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이후 고조선의 강역이 압록강 이남 지역 즉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었다.⁹⁸⁾ 이러한 견해는 安鼎福의 《東史綱目》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한편 일부 학자에 의해 제기되었던 요동설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19세기의 丁若鏞은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안에 있었으며 후에 영토를 확장하여 遼西를 점령하고 燕과 국경을 접하였다는 보다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韓致堉의 《海東釋史》와 韓鎭書의 《海東釋史續》에서는 고조선의 강역은 요서지방을 훨씬 넘어섰으나 그 수도는 평양이었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⁹⁹⁾

고조선의 대동강중심설은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일본인 학자 및 우리 학자들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일본인 학자들은 이를 식민지배의 역사적 설명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굴된 평양 일대의 중국계 유물·유적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다.¹⁰⁰⁾ 우리 나라 학자들은 아사달을 현재의 평양으로 보고 《史記》의 溟水를 淸川江으로, 《魏略》의 滿潘汗을 博川江 일대로, 《漢書》의 列水를 大同江으로 보아 고조선의 강역을 지

96) 《三國遺事》 권 1, 紀異 2, 古朝鮮.

일연은 阿斯達를 開城주변, 太白山을 妙香山으로 비정하고 檀君이 도읍한 平壤城을 西京 즉 현재의 평양으로 보았다.

97) 《東國輿地勝覽》 권 51, 平壤府 建置沿革條.

98) 韓百謙, 《東國地理誌》 後漢書 三韓傳.

99) 이같은 조선 중후기의 한반도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滿洲源流考》로 대표되는 만주사 부각에 대한 학문적 반박으로 파악되고 있다(韓永愚, 《朝鮮後期 史學史研究》, 一志社, 1989, 432쪽).

100) 趙法鍾, 〈樂浪問題(平壤地域文化)에 대한 日本歷史學界의 認識檢討〉(《宋甲鎬教授停年退任記念論文集》, 1993), 551~555쪽.

금의 평안남도지역으로 비정하였다.¹⁰¹⁾ 한편 북한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반 일련의 고고학 관련 학자들이 평양지역의 유적·유물을 근거로 평양중심설을 주장하였으나, 공식적 입장이 요동설로 정리된 이후 이같은 견해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최근 檀君陵 발견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면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¹⁰²⁾

나. 요동중심설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는 權攄의 《應制詩註》에 잘 나타나 있다. 권람은 낙랑을 압록강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箕子의 건국지를 靑州(遼東, 遼西)로 비정하여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지역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洪汝河는 《東國通鑑提綱》에서 眞番을 遼陽에 비정하고 溟水도 遼河로 비정하여 고조선의 요동중심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申景濬과 李瀾 등도 고조선의 중심을 요동지역으로 비정하였다.¹⁰³⁾ 이러한 견해는 申采浩·崔南善·安在鴻·鄭寅普로 이어졌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 있었다는 요동중심설은 1960년대 이후 북한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⁰⁴⁾ 북한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에 관하여 요동설·평양설·이동설 등이 제기되어 논란을 벌였는데 그 결과 요동설이 채택되었다.¹⁰⁵⁾ 북한학계의 공식

101) 그런데 이러한 李丙巖의 견해는 그가 주로 이용한 자료가 古朝鮮의 위치비정에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되는 《史記》의 朝鮮列傳이 아니라 《한서》 지리지이고 또 위치비정을 위한 언어학적인 고찰도 방법상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徐榮洙, 앞의 글, 24~29쪽).

102) 북한의 사회과학원은 평양 근교의 강동군 강동읍의 대박산에 있는 무덤에 대하여 〈단군릉 발굴보고〉(1993. 10. 2)를 발표하고 곧이어 10월 12일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여 이 무덤이 단군릉임을 확정지었다. 종래 이 무덤은 《동국여지승람》에 속설로서 단군릉이라고 일컬어져 오던 것으로, 기왕에 주장되었던 고조선 요동중심설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단군릉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가 참조된다.

이형구 편, 《단군을 찾아서》(살림터, 1993).

북한문제연구소 편,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 자료》(1993).

103) 韓永愚, 앞의 책, 207~217쪽.

104) 徐榮洙, 앞의 글, 28~32쪽.

105) 김기웅 정리, 〈고조선문제에 대한 토론개요〉(《력사과학》 6, 1961).

장주협 정리, 〈고조선령역에 대한 학술토론회〉(《력사과학》 2, 1963).

리병선 정리, 〈고조선문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학술토론회〉(《력사과학》 5, 1961).

적 견해로 자리잡은 요동중심설은 실학자들의 연구성과와¹⁰⁶⁾ 이를 계승한 민족주의 사학자로 지칭되는 신채호와 정인보 등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또한 평양설¹⁰⁷⁾ 및 이동설도¹⁰⁸⁾ 정약용과 안정복 등 실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인 학자들의 고고학적 발굴성고를 인정하는 선상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주장을 반드시 민족의 자존심과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동중심설은 大凌河를 고조선의 국경선인 溟水로 보고 於尼河를 王儉城의 沛水라고 비정하여 고조선의 중심지를 오늘날의 蓋平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 이전에는 蓋國·靑邱國·肅慎國 등의 국명이 있었으나 기원전 7세기 이후에는 조선만이 보이는데 이는 여러 나라를 통일한 후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灤河 좌안지대인 昌黎에 고조선의 도읍지가 언제인가 있었다고 보았다.¹⁰⁹⁾ 이같은 견해는 북한학계의 공식적 주장으로서 관련 유적·유물 등에 대한 고고학적 재해석 등이 보완되어 나름의 체계를 견지하며 최근까지 유지되었다. 우리 학계에서는 일부 학자가 이같은 견해를 수용하여 이를 부연하였다.¹¹⁰⁾

다. 중심지이동설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은 요동중심설과 대동강중심설의 절충적 측면이 강한 견해로서 두 지역에 공존하는 고고학적 자료와 고조선 관련 문헌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세력의 확장에 따라 그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지역

허종호 정리, <고조선의 위치와 령역에 대한 학술토론회>(《력사과학》 5, 1961).
趙法鍾, <북한 학계의 고조선연구>(《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대륙연구소, 1994), 134~171쪽.

106) 성호 이익, 박지원, 이규경 등이 요동설을 주장하였다.

107) 북한학계의 대표적인 평양설 주장자는 도유호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성원들로서 세형동검으로 대표되는 劍鏃文化와 평양 일대에서 발굴된 중국식 유물 등을 주요 논거로 들었다.

108) 북한학계에서 이동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정찬영을 들 수 있다. 그는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가 요동지역에서 중국세력의 확장에 의해 현재의 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109) 리지린, 앞의 책, 83~96쪽.

110) 尹乃鉉, 《古朝鮮研究》(一志社, 1995).

으로 이동하였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내학계의 주도적 견해이며 북한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반 소수의 견해로 제기된 바 있다.¹¹¹⁾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은 우선 사료에 나타나는 이른바 箕子東來說을 중시하여 이를 기자족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기자가 殷人으로서 중국인을 구성하는 일부였지만 동래한 후에 이들 기자족은 한국인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의 극히 일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와 箕侯의 실재를 인정하며 기자를 東夷로 보고, 기자는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자족의 일파는 난하 하류의 孤竹國 근처에 한동안 정착하였는데 바로 이 기자가 머문 지역이 조선이며, 조선왕의 舊都를 뜻하는 王儉·險瀆도 요서·요동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족은 고죽국을 떠나 요서·요동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조선이라고 불렀으며, 기자족은 기자의 사후에도 기자족단이라는 혈연의식을 가지고 殷末·周初로부터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 평양지역에 도달하였고 그 직후 또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단군조선과 대체되었다고 한다.¹¹²⁾

이와는 달리 요령지방 청동기문화의 담당자는 조선족이었고 燕의 동방진출에 의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즉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는 朝陽·요동반도·요동지방에 각각 읍락국가의 정치·문화적 중심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고조선을 맹주국으로 하는 연맹국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연의 침략으로 고조선의 세력이 약해져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기원전 4~3세기경에는 고조선의 영역이 요동에서 한반도의 서북부에 걸쳐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¹¹³⁾

고조선은 그 초기에 중심지가 요동지역이었으나 후기에는 대동강유역의 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전성기의 고조선의 강역은 대체로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大凌河유역에서 東胡와 접하였고 남쪽으로는 대동강유역을 경계로 辰國과 이웃하였으며 북쪽과 동쪽으로

111) 김기웅, <고조선문제에 대한 토론개요> (《역사과학》 1961-6).

정찬영 정리, 앞의 글.

112) 千寬宇, 《古朝鮮·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10~13쪽.

113) 金廷鶴, 《韓國上古史研究》(범우사, 1990), 177쪽.

濊貊・夫餘・眞番・臨屯・肅慎과 접했다고 한다. 또한 고조선은 城邑國家・聯盟王國・執權的 領域國家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으며, 최초의 조선의 위치는 阿斯達이라고 하였으므로 초기 고조선은 아사달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위치는 요동의 險瀆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라고 보고, 험독의 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요하 이동 天山 이서의 어느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¹¹⁴⁾

한편 중심지이동설의 관점에서 고조선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보는 견해도 있다. 우선 周初인 기원전 11세기경 연의 세력이 대릉하 중・상류유역에까지 진출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연의 세력은 기원전 8세기경에 비파형동검문화가 발달하면서 남쪽으로 밀려났다고 한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요서지방에는 山戎의 여러 집단이 활동하였고 이들과 비파형동검문화가 연결된다고 한다. 또한 기원전 3세기에 요서지방은 東胡의 지역이었고 요하 이동이 고조선지역이었으므로, 기원전 3세기 초까지 고조선의 중심부는 요동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고조선은 그 중심지를 이동하게 되었으며 滿潘汗이 고조선의 중심지였거나 중심지의 동쪽 외곽이었고,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海城縣의 서남쪽과 蓋平縣을 포괄하는 지역의 어느 곳에 있었다고 보았다.¹¹⁵⁾

한편 발해연안의 초기 청동기시대의 연대는 기원전 2000~1700년경이고 요동반도의 청동기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1500~1300년경이며,¹¹⁶⁾ 夏家店 下層文化와 상층문화는 서로 계승관계가 없고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의 청동기유적은 주로 대릉하유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喀左의 北洞遺跡과 山灣子遺跡・小轉山子遺跡・小波汰溝遺跡 및 朝陽地區, 義縣 肖戶營子遺跡의 청동기들 가운데, 특히 孤竹銘과 箕侯銘 청동기를 주목하여 고죽국의 위치 및 기후(箕子)와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殷代 고죽국의 범위는 대체로 난하 하류로부터 동으

114) 徐榮洙, 앞의 글, 45~49쪽.

115) 盧泰敦, 앞의 글, 42~53쪽.

116) 李亨求, 〈韓國民族文化의 시베리아起源說에 대한 再考〉(《東方學志》 69, 1990), 12쪽.

로 대릉하 하류의 조양지구에 이르고, 남으로는 산해관 동쪽의 금서현 전위, 북으로는 객좌현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周初의 기자는 바로 이 고죽국으로 피신하였고, 당시 기자의 세력이 강력하였으므로 주의 무왕은 그 세력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은말·주초에 周族으로부터 밀려난 殷王族인 기자를 대표로 하는 은의 유민들이 대릉하유역에서 기자조선을 건국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기자조선은 기원전 12~11세기경 기자의 이주로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2세기 초 조선왕 準에 이르기까지 거의 천 년을 이어 온 것이라고 하였다.¹¹⁷⁾

중심지이동설의 또다른 견해로는 고조선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기왕에 진행한 신라형성사 연구의 틀을 원용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의 위치문제에 대해 이동론적 입장에서 서술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이었는데 뒤에 燕將 秦開의 공격에 의해 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고조선 후기에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¹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조선의 중심지문제는 결국 고조선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접촉에 관련된 지명들이므로 이들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조선 관련 사료가운데 중국세력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지명은 燕과 秦長城·沮水·王儉城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위치와 아울러 漢에 의해 설치된 漢四郡, 특히 樂浪郡의 위치문제 등이 곧 고조선의 영역과 직결되어 있다.

(2)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영역

가. 춘추전국시기 고조선의 영역

고조선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사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속에서 고조선의 존재 시기와 정치적 성격 및 지리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문헌 가운데 조선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管子》인데, 춘추시대 齊나라 宰相인 管仲의 저작으로 알

117) 李亨求, 위의 글, 11~33쪽.

118) 李鍾旭, 《古朝鮮史研究》(一潮閣, 1993), 170~181쪽.

려져 있는 《관자》는 기원전 7세기경에 중국인들에게 이미 조선의 존재가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제나라의) 桓公이 管子에게 “내가 듣건대 海內에 귀중한 예물 일곱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들을 수 있겠소”라고 하니 管子가 “陰山의 유민이 그 한 가지요, 燕의 자산 백금이 그 한 가지요, 發과 朝鮮의 文皮가 그 한 가지요…”라고 답하였다(《管子》 권 23, 揆道篇).
- ② 桓公이 말하기를 “사방의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정치가 천하에 퍼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걱정인데… 發과 朝鮮이 朝勤을 오지 않는 것은 문피와 태복을 예물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표범 가죽이라도 여유있는 값으로 계산해 준다면 8천 리 떨어진 발과 조선도 조근을 오게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管子》 권 24, 輕重甲篇).

위의 사료는 조선의 존재가 이미 중국 춘추시대에 알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자》의 상당수 내용이 전국시대에 저술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에 이같은 전승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를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중이 山戎族들을 축출하기 위해 燕지역까지 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조선의 존재와 함께 그 위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내용으로 보아 조선이 연 등의 지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원전 4~3세기경 이미 간행되었으나 뒤에 郭璞(276~324)에 의해 다시 편찬된 《山海經》 海內北經에는 “조선은 列陽의 동쪽에 있는데 海의 북쪽이며 山의 남쪽이다. 열양은 燕에 속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조선이 연에 인접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戰國策》 燕策에도 “蘇秦이… 燕文侯(기원전 361~333)에게 말하기를 연의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으며”라 하여 기원전 4세기경 연의 동쪽에 조선이 있었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같이 조선이 연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였음이 부각되어 있고 관련 지명으로 ‘遼東’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선진시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조선은 적어도 기원전 7세기경 춘추시대의 중국인들이 교역을 한 대상이었으며 정치적 복속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존재였다. 또한 전국시대 문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연나라와의 지역적 인접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지명으로 ‘열양’·‘요동’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중국세력과 고조선과의 본격적인 정치·군사적 갈등

이 전개되고 있음이 《史記》朝鮮傳과 《三國志》東夷傳 韓條에 인용되어 있는 《魏略》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관련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 옛箕子の 후예인 朝鮮侯는 周나라가 쇠약해지자 燕나라가 스스로 높여 王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으로 보고, 그도 역시 스스로 王號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逆攻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고 하였는데 그의 大夫 禮가 간하므로 중지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서쪽으로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 ④ 그 뒤에 자손이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은 장군 秦開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지방을 침공하고 2천여 리의 땅을 빼앗아 滿番汗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조선의 세력은 약화되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 ⑤ 조선왕 滿은 옛날 연나라 사람이다. 처음 연나라의 진성기부터 일찍이 眞番과 朝鮮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국경에 障塞를 쌓았다(《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위의 사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시대부터 조선과 중국의 정치체들이 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연과 고조선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겪었으며 급기야 군사적 충돌까지 일으켰는데, ③에서는 연이 稱王하는 시기에 조선도 함께 칭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을 칭한 시기는 연의 易王(기원전 332~321)이 처음으로 왕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¹¹⁹⁾ 대체로 기원전 4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높다.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조선은 이미 왕을 칭하며 신하인 大夫 禮를 연에 파견하여 외교적 공세를 펼치고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정도로 국가적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④와 ⑤에는 이같은 고조선의 성장에 대한 연의 구체적 공세과정, 즉 고조선의 영역축소와 관련된 중대 사건인 燕將 秦開의 고조선 西邊 2천 리 공취사건이 나타나 있다. 이는 진개가 東胡를 치고 천 리를 개척하여 5군을 설치하였다는 《사기》匈奴傳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관련된다.

119) 전국시대 중국의 稱王은 齊나라가 기원전 334년, 秦과 韓은 기원전 325년, 魏·趙·燕 등은 기원전 323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후 燕에는 현명한 장수 秦開가 있어 東胡에 인질로 갇혔는데 동호가 그를 상당히 신임하였다. 진개가 돌아와 동호를 습격하여 그들을 敗走시켜 천여 리 땅을 빼앗았다. …연은 또한 長城을 쌓았는데 朝陽으로부터 襄平에 이르렀다. 그리고 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을 설치하여 동호에 대항하였다(《史記》 권 110, 列傳 50, 匈奴).

위의 사료에는 구체적으로 진개와 고조선과의 관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연이 長城을 쌓았다는 사실과 5郡을 설치하였다는 내용만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鹽鐵論》에 나타나 있는 다음 내용은 연이 동호를 공격하면서 함께 요동지역을 넘어 조선을 공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燕이 東胡를 습격하여 바깥으로 천 리를 물러나게 하였으며 遼東을 지나 동쪽으로 朝鮮을 공략하였다(《鹽鐵論》 권 8, 伐攻篇).

이 사건은 고조선의 영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즉 기원전 3세기경 요동 서쪽까지 뻗어 있던 고조선의 영역은 진개의 공격에 의해 2천 리를 상실하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고조선이 遼河線까지 유지하고 있던 영역 가운데 요동지역 거점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사료 ④에 ‘滿番汗’이라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이 고조선과 접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새로 설치된 5군 가운데 요서·요동군지역은 고조선과 관련이 깊은 곳임을 알 수 있다.¹²⁰⁾ 이 만번한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벌여 왔다. 만번한을 《漢書》地理志에 나타나 있는 前漢代 요동군의 속현인 文縣과 番汗縣의 연칭으로¹²¹⁾ 이해하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현재의 어디인가인데 이에 대해서 《讀史方輿紀要》에서는 文縣故城이 蓋州衛 서쪽에 있

120) 《遼東志》를 토대로 하여 북경에서 산해관까지 670리, 산해관에서 심양까지 810리, 심양에서 압록강까지를 600리라고 보고, 압록강에서 북경까지 2천 리가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는 정약용이 義州에서 北京까지의 거리가 2천 리라고 한 것과 합치한다면서 고조선의 영역이 요서, 요동에 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리지린, 앞의 책, 17쪽).

121) 《漢書》 권 28 下, 志 8 下, 地理.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헌은 오늘날 요동반도의 蓋平 서쪽으로 비정할 수 있으며, 《한서》 지리지 변한현조에 나오는 沛水는¹²²⁾ 淤泥河로 볼 수 있으므로 변한현은 현재의 요동 海城縣 및 蓋平 일대로 볼 수 있다.¹²³⁾

따라서 기원전 7세기경의 춘추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국 초기의 고조선은 燕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와 대등한 정치·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는 등 연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중반 연의 昭王 때에 이루어진 진개에 의한 동호 공략과 고조선 공략으로 고조선은 연에 의해 서쪽 경계의 영역을 축소당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나. 진의 중국통일과 고조선의 영역

秦에 의한 중국의 통일시기에는 앞서 연의 동방침략에 의해 구축된 고조선과의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치적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전개되었다.

- ①-㉔ 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蒙恬을 시켜서 長城을 쌓게 하여 요동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에 조선왕 否가 왕이 되었는데 진나라의 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나라에 복속을 하였지만 조회에는 나가지 않았다. 부가 죽고 그 아들 準이 즉위하였다.
- ㉕ 그후 20여 년이 지나 중국에서 陳勝과 項羽가 起兵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燕·齊·趙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점차 準에게 망명하므로 준은 이들을 서부지역에 거주하게 하였다(《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 ② 秦이 燕을 멸한 뒤에는 (그 곳을) 遼東外徼에 소속시켰는데…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사료 ①-㉔와 ②는 秦이 연에 의해 점령되었던 고조선의 서변지역을 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조선왕 否에 대한 朝覲을 강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조선이 군사적 대응도 하고 있어 모종의 갈등이 있었음을 《魏略》 기사와 《鹽鐵論》 기사에서 유추

122) 《漢書》 권 28, 志 8 下, 地理 遼東郡.

123) 盧泰敦, 앞의 글, 49~51쪽.

할 수 있다. 즉 진이 장성을 수축하면서 고조선의 경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진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조선왕 부가 복속을 자청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염철론》에서는 沛水를 넘어 진이 고조선을 직접 공략하였다고 했으므로 그 결과 고조선왕 부가 臣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조선은 진이 등장한 시기에 타협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같은 입장과 정책은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이해된다. 다음의 자료는 그 예이다.

- ③ 효문제가 즉위하였을 때에 장군 陳武가 아뢰기를 “南越과 朝鮮은 진나라의 전성기 때에 내속하여 신자가 되었는데 뒤에 병사를 끼고 험한 곳에 의지하여 관망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史記》 권 25, 書 3, 律).
- ④ 秦이 천하를 통일한 뒤 동쪽으로 沛水를 넘어 朝鮮을 멸하였다(《鹽鐵論》 권 8, 誅秦 44).

그런데 진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의 강역을 설명한 아래 사료에서도 조선은 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과거에 연과 접하고 있던 조선이 진과도 영토적으로 접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長城의 동쪽 끝부분이 조선과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진의 영토를 설명하면서 요동지역과 沛水가 제시되고 있는데 沛水는 溟水의 이칭으로 믿어진다.

- ⑤ (秦의) 땅은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고 朝鮮에 미쳤다. 서쪽은 臨洮·羌中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北嚮戶에 이르렀으며 북쪽은 황하에 의거하여 요새를 삼고 음산과 나란히 遼東에 이르렀다(《史記》 권 6, 本紀 6, 秦始皇).
- ⑥ 城을 쌓았는데 서쪽으로는 流沙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遼水와 만나며 동쪽은 朝鮮과 연결되어 있다(《淮南子》 18, 人間訓).

결국 秦代 고조선의 지리적 위치는 이 시기 요동의 위치와 秦 長城의 동쪽 끝이 어디인가라는 문제로 집약된다. 기본적으로 진 장성은 앞서 연나라가 쌓았던 鄣塞와 관련되는 것으로 장성의 동쪽 끝에 대해서는 요동설·요서설·한반도 서북부설 등이 제시되어 왔다.

요서설은 《水經注》에 나타나 있는 碣石山¹²⁴⁾이 장성의 기점이라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진 장성이 현재의 山海關지역의 갈석산까지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북한학계의 통설로서¹²⁵⁾ 특히 魏晉南北朝期の 北齊와 北周 및 隋代の 장성이 갈석에 이르러 요서의 해안에 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¹²⁶⁾ 한편 한반도 서북부설은 낙랑군 遂成縣이 진 장성의 기점이라는 《晉書》지리지의 기사를 논거로 하여 제시된 것인데, 현재 관련 유적이나 당시 장성의 수축 목적이 유목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견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¹²⁷⁾

요동설은 《사기》흉노전 등에 “장성이 臨兆에서 시작되어 요동에 이르렀는데 만여 리이다”¹²⁸⁾라는 기사를 근거로 제시된 견해인데, 특히 최근 보고되고 있는 연과 진의 장성유적지에 관한 고고학적 발굴성결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고고학계가 보고하고 있는 요령성지역의 장성은 남북으로 두 개의 줄기를 이루며 동서로 뻗어 있는데, 북쪽 遺址는 英金河 北岸을 따라 赤峰縣·敖漢旗를 횡단하고 吉林省 奈曼旗·庫倫旗 남부로부터 阜新縣으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쪽 유지는 喀喇沁旗와 적봉현 남부를 거쳐 老哈河를 넘어 建平縣 북쪽과 오향기 남부를 통하여 北票縣으로 진입하고 있다.¹²⁹⁾ 이같은 고고학 자료는 연과 진 장성의 동쪽 끝이 현재의 요하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연과 진에 의해 축소된 고조선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124) “시황이 태자 부소와 몽염에게 명하여 장성을 쌓게 하였다. 장성은 임조에서 시작하여 갈석에 이르렀는데…”(《水經注》1, 河水).

125) 리지린, 앞의 책, 71쪽.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비파형단검문화에 대한 연구》, 1987).

리상호, <기원전 4세기이전 고조선의 서단과 중심지에 대하여(하)>(《역사과학》 1964-3).

126) 盧泰敦, 앞의 글, 21쪽.

127) 松井等, <秦長城東部の位置>(《歴史地理》13-3, 1909).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史學雜誌》21-2, 1910).

李殿福, <東北境內燕秦長城考>(《黑龍江文物叢刊》82-1, 1982).

128) 《史記》권 110, 列傳 50, 匈奴.

129) 文物編輯委員會, 《文物考古工作三十年》(1979), 92~93쪽.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1984), 400~406쪽.

한편 秦・漢代 요동의 위치는 고조선의 영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요동의 위치비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종래 고조선의 영역을 압록강 이남지역에서 찾은 견해에 의하면 진・한대 요동은 현재의 요하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된다. 이와는 달리 고조선의 영역을 청천강 이남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따른다면 요동의 위치는 요하 이동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지역이 된다. 따라서 이같은 견해에 의하면 진・한대 요동군의 영역은 요하 이동지역이 되며 요동과 요서의 경계가 현재의 요하로 파악되는 셈이다.

한편 《전국책》燕策의 “蘇秦…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이라는 기록을 ‘조선의 요동’으로 이해하고, 이 지역에 점차 진의 세력이 침투하여 한나라 초기에 ‘燕分爲遼東’이라고 한 사실¹³⁰⁾ 등에 근거하여 진나라와 한나라 초에는 遼東國과 遼東郡이 따로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燕王 韓廣이 요동왕이 되어 無終에 도읍하였고 燕將 臧荼가 연의 왕이 되어 薊에 도읍한 것으로 보아¹³¹⁾ 요동국과 요동군이 따로 존재하였는데 연과 구별되는 요동은 灤河 이동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秦二世가 갈석산에 다녀온 사실을 요동에 갔다온 것으로 이해하여,¹³²⁾ 현재의 산해관에 존재하는 갈석산의 위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난하를 당시에는 遼水로 칭했음을 논증하면서 이를 보강하여 진・한 초의 요동은 현재의 난하 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¹³³⁾ 이같은 견해는 최근 일부 학자에 의해 부연되고 있는데,¹³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사료해석에 나타나는 논리적 비약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¹³⁵⁾

한편 고조선의 중심이 요동에서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최근에 제기된 견해에 의하면, 燕代의 요동군은 요하 중류의 군사기지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秦代에는 그 범위가 압록강까지 확대되었으나 군현지배가 본격적으로

130) 《史記》권 16, 表 4, 秦楚之際月 義帝 元年.

131) 《史記》권 7, 本紀 7, 項羽.

132) 《史記》권 6, 本紀 6, 秦始皇.

133) 리지린, 〈진・한대 요동군의 위치〉(《역사과학》1963-1), 55~64쪽.

134) 尹乃鉉, 앞의 책.

135) 徐榮洙, 앞의 글, 32~34쪽.

이루어진 것은 漢代부터이므로, 燕將 秦開 침입 이전의 고조선 영역은 요동을 중심으로 하여 대릉하유역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¹³⁶⁾

이와 같이 진·한대 요동의 위치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그 西邊이 현재의 요하라는 견해와 난하라는 견해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인가 또는 현재의 요동지역인가라는 문제 및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최근의 요동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문헌고증에 의거할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아무래도 현재의 요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대릉하 이동지역에서 고조선의 독자적 문화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속적인 발굴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고조선과 진과의 관계는 진나라 말기에 가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진이 와해되는 계기가 된 陳勝·項羽의 난 이후 접경지역이 空地化하여 망명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이 적극적인 공략을 통하여 과거에 잃어버렸던 지역을 일부 회복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大夫가 말하기를 옛적에 四夷가 모두 강하여 (중국에) 쳐들어와 도둑질하였는데 朝鮮은 徼를 넘어 燕나라의 동쪽 땅을 빼앗았다(《鹽鐵論》 권 7, 備胡).

위에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漢武帝 때 鹽鐵專賣문제를 논의하면서 옛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徼’를 넘어와 燕의 동쪽을 빼앗았다는 것은 과거 秦의 遼東外徼를 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위의 사료는 진이 붕괴되는 시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때 고조선은 중국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과거 연에게 빼앗겼던 失地를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고조선은 중국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복속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립을 견지하면서 계속 연·진세력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시기에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연·진과 같은 중국세력을 상대할 만큼의 국가적 수준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6) 徐榮洙, 앞의 글, 41~42쪽.

다. 한과의 관계와 위만조선의 영역

秦·漢교체의 혼란기에 고조선지역으로 대규모 流民이 이동해온 것과 때를 같이하여 성립된 위만조선을 통하여 고조선의 지리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우선 관련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漢이 일어나서는 (遼東外徼가) 멀어 지키기 어려운 까닭에 다시 遼東故塞를 수리하고 溟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燕지역에 부속시켰다(《史記》 권 115, 列傳 55, 朝鮮).
- ② 燕王 盧綰이 漢을 배반하고 匈奴로 들어가자 滿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溟水を 건너 秦의 옛 空地인 上下障에 居하였다. 점차 眞番과 朝鮮의 蠻夷 및 옛 燕·齊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王險에 도읍하였다(《史記》 권 115, 列傳 55, 朝鮮).
- ③-④ 한나라 때에 이르러 盧綰으로 燕王을 삼으니 朝鮮과 燕은 溟水を 경계로 하게 되었다.
- ⑤ 盧綰이 漢을 배반하고 匈奴로 도망한 뒤 연나라 사람 衛滿도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準에게 항복하였다(《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위의 사료에는 위만이 전국시대의 燕지역 사람으로서 漢과 고조선의 완충 지대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성장시켜 이를 바탕으로 準王을 축출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먼저 위만의 망명 경로를 보면 ㉠ 동쪽으로 塞를 나와, ㉡ 溟水を 건너(《魏略》에는 溟水로 나와 있지만 이는 溟水의 誤記로 생각된다), ㉢ 秦故空地 上下障에 거하면서, ㉣ 준왕을 몰아내고 王險에 도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고조선의 준왕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위만조선이 그대로 이어받아 영역의 변동이 없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한편 관련 지명으로서 溟水·王險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패수는 한과 조선의 국경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만의 망명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게 될 한 무제의 조선침공 및 한사군 설치 등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패수의 위치에 관해서는 대동강설·청천강설·압록강설 및 요동지역설 등이 있으며 요동방면설로는 灤河·大凌河·渾河說 등이 제시되어 있다. 대동강설은 酈道元의 《水經注》 이래 《隋書》·《新唐書》·《通典》 등의

중국사서에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는 견해이다. 한편 패수를 압록강·대동강·요동 이하·猪灘水 등으로 각기 달리 비정한 한국의 전통사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여 패수에 관한 이해가 다양하였음을 보여준 정약용은 압록강설을 견지하였다.¹³⁷⁾

일제 강점기 우리 학자에 의해 제기된 청천강설은 洌水을 대동강으로 보고 평양지역을 고조선의 중심지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시된 것이다.¹³⁸⁾ 한편 申采浩는 軒芋瀾을,¹³⁹⁾ 정인보는 於泥河(大凌河)說을¹⁴⁰⁾ 제기하여 패수가 요동방면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요동방면설은 북한학자들에 의해 대릉하설로 이어졌다. 즉 패수에 관한 최초의 언급인 《水經》 溟水條의 “溟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溟縣 東入于海”라는 기사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요동과 요서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하류에 가서 다시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대릉하 밖에 없으며, 또한 대릉하의 옛 명칭이 白狼水였으므로 패수는 곧 대릉하라는 것이다. 특히 漢代 鏤方縣이 대릉하유역에 있었음을 고증하여 이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¹⁴¹⁾

한편 《漢書》地理志 遼東郡 番汗縣조의 註를 인용하여 溟水라는 명칭이 보통명사로 파악된 연유 등을 설명하면서 패수를 난하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¹⁴²⁾ 그러나 고조선의 서쪽 국경인 패수와 고조선의 중심부에 있었던 洌水가 모두 난하라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기》에 따르면 패수는 遼東故塞와 고조선의 중심지인 열수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동고새를 秦 長城의 동쪽 끝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열수를 요하로 파악한 견해에 의하면 패수는 자연히 대릉하로 비정될 수밖에 없다.¹⁴³⁾ 한편 고조선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열수의 명칭도 옮겨졌으리라고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 열수는 대동강에 비정될 수 있으므

137) 丁若鏞, 《與猶堂全書》 6, 疆域考 溟水辯.

138) 李丙燾, 〈溟水考〉(《靑丘學叢》 13, 1933; 앞의 책).

139) 申采浩, 《朝鮮史研究草》(《丹齋申采浩全集》 권 下, 1972), 45~65쪽.

140) 鄭寅普, 앞의 책.

141) 리지린, 앞의 책, 72~83쪽.

142) 尹乃鉉, 앞의 책, 11~250쪽.

143) 리지린, 앞의 책, 80~83쪽.

로 패수는 대동강과 요하 사이의 강이 된다. 이처럼 패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청천강설과 압록강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패수는 요동고새(燕의 韓塞)와 秦故空地 사이의 강이 된다. 연의 동방진출시 조선과의 국경선이었던 만반한이 하나의 界線이었다면 패수는 이와 병행하는 강으로 볼 수 있다. 만반한이 천산산맥 주변지역에 비정되므로 고조선의 이동과 관계없이 패수는 요동지역에 있던 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기》의 패수와는 다른 강으로 《한서》 지리지에 보이는 패수가 있다. 《한서》에 나타나는 패수는 조선계 지명으로 흔히 고조선의 수도 근처를 흐르는 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평양 남쪽의 후일의 패수는 바로 고조선 말기의 중심지였던 대동강을 일컫는 것이 분명하므로 《사기》의 패수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패수와 함께 위만의 도읍지로 등장하는 王險¹⁴⁴⁾의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왕험의 위치는 고조선이나 위만조선의 강역은 물론, 위만조선 멸망 후 그 지역에 설치된 한사군의 위치비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관련 주석 자료 사이에도 상호 차이가 있다.¹⁴⁵⁾ 고려시대 이후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왕험의 위치는 현재의 평양으로, 또 고조선이나 한사군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로 이해하여 왔다.¹⁴⁶⁾ 이에 대해 요동군의 속현인 險瀆을 조선계 지명인 검터의 한자어 표기인 儉瀆으로 이해하고 이를 왕검성에 비정하여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도읍이 계속하여 요동에 있었다고 본 견해가 있는데, 북한학계에서는 현재의 蓋平지방으로 그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¹⁴⁷⁾

144)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王儉으로 표기하고 있다.

145) 《史記集解》에서는 ‘昌黎有險瀆縣也’라는 서광의 말을 인용하고, 《史記索隱》에서는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라는 응소의 주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漢書》地理志 遼東郡 險瀆의 注에는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이라는 응소의 견해와 ‘王險城在樂浪郡 溟水之東 此者是險瀆也’라는 臣贊의 해석이 부기되어 있다.

146) 丁若鏞, 《與猶堂全書》 6, 疆域考 朝鮮考.

147) 리지린, 앞의 책, 83~96쪽.

한편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에 의하면 험독은 고조선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조선계 지명으로서, 고조선의 도읍은 요동의 험독에서 평양의 험독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고조선의 초기 도읍지는 요동의 험독이 분명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대체로 요하 이동 천산 이서의 어느 지역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기》에 나오는 王險城은 진고공지를 지나서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고조선이 요동의 험독에서 그 중심지를 옮긴 이후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후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지역이 유력하다고 보았다.

〈金貞培〉

2. 고조선의 변천

1) 고조선사회의 국가적 성장

중국문헌 가운데 朝鮮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록은 《管子》로서 기원전 7세기경의 중국인들에게 이미 조선의 존재가 인식되고 있었음을 앞에서 보았다. 이 시기의 고조선은 이른바 箕子朝鮮¹⁾ 즉 濊貊朝鮮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山海經》과 《戰國策》 등에 의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 燕의 동쪽에 존재한 것으로

1) 箕子朝鮮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箕子東來에 입각한 인식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기자동래를 부정하고 대신 그 실체의 성격에 대해 李丙燾의 ‘韓氏朝鮮說’, 金貞培의 ‘濊貊朝鮮說’, 千寬宇의 ‘箕子族團移動說’ 등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震檀學報》 3, 1935;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金貞培, 〈古朝鮮의 住民構成과 文化的 複合〉(《白山學報》 12, 1972; 《韓國民族文化的 起源》, 高麗大 出版部, 1973).

——,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韓國史研究》 13, 197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 出版部, 1986).

千寬宇, 〈箕子攷〉(《東方學志》 15, 1974; 《古朝鮮·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되어 있다. 이들 先秦시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고조선은 적어도 기원전 7세기경 춘추시대의 중국인들이 교역을 행하는 대상이었으며 정치적 복속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들 선진시대 문헌에는 고조선의 존재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사회수준이나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이 시기 고조선사회의 성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사료가 참고된다.

옛 箕子の 후예인 朝鮮侯는 周나라가 쇠약해져 燕나라가 스스로 높여 王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으로 보고,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王號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공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고 하였는데 그의 大夫 禮가 간하므로 중지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서쪽으로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시기는 燕이 王을 칭하는 기원전 4세기 후반경인데, 연과 정치·군사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당시 고조선사회의 수준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즉 연과 함께 고조선이 왕호를 취하고 있으며 신하인 大夫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연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외교적 강경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고조선의 세력이 연에 버금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4세기경의 예맥조선 후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고조선이 국가로서 발돋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중반의 연의 昭王代에 秦開가 조선을 공략하여 2천여 리라는 광대한 지역을 빼앗았으며, 이후 秦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조선왕 조가 복속의 예를 갖추었다는 후속 사료에서 더욱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에게 빼앗긴 고조선의 일부 영역이 2천 리라는 사실은 그 나머지 영역이 매우 광대하였으며, 진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조선에 대한 정치적 복속을 강요한 것은 고조선의 세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고조선사회의 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만과 관련된 사료에서 볼 수 있다. 즉 위만과의 관계에서 볼 때 후기 예맥조선은 이미 초기국가적 성격을

떠고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²⁾ 예맥조선 말기의 여러 양상은 그 단계를 初期國家(Pristine State)로 규정하게 하는데, 사회계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국가가 성립될 때 지니게 되는 여러 면을 일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맥조선은 君長社會(Chiefdom)의 단계가 아니라 초기국가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에서 국가의 기원과 형성문제는 고조선에서 그 시발을 찾을 수 있다.³⁾ 고조선으로 지칭되는 우리 역사 최초의 정치체는 기본적으로 ‘檀君朝鮮’·‘箕子朝鮮’·‘衛滿朝鮮’ 등으로 구별되는 정치체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로서 이들의 사회적 수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논란거리이다. 특히 이들의 존재 시기와 중심지 및 사회성격 등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며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실제로 우리 나라의 국가 기원 및 형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기자조선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⁵⁾ 즉 위만조선의 성립 이전 이른바 기자조선 후기 단계에 이미 국가로서의 조직체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고조선이 국가로서 출발한 시점은 연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할 때 기원전 4~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짐작되는데, 국가적 정치조직체의 편린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朝鮮侯’라는 최고의 정치적 존재가 ‘王’⁶⁾을 자칭하였으며 그 신하로서 ‘大夫’라는 존재가⁷⁾ 나타나

2) Fried는 階層社會(Stratified Society)와 國家(State)의 단계를 더 설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두 단계는 구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Fried는 국가를 初期國家(Pristine State) 이를 原初 또는 原生國家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와 二次國家(Secondary State)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 초기국가는 그 지역에서 발생·발전된 것이며, 2차국가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이다(Service, E.R.,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p.304 및 金貞培, 앞의 책, 1986, 180쪽).

3) 金貞培, 〈韓國 古代國家의 起源論〉(《白山學報》14, 1973; 위의 책, 1986).

4) 盧泰敦, 〈古朝鮮史研究의 現況과 課題〉(《韓國上古史》, 民音社, 1989).

5) 金貞培, 〈衛滿朝鮮의 國家의 性格〉(《史叢》21·22, 1977; 앞의 책, 1986, 24~45쪽).

6) ‘王’은 조선후가 참칭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周代의 경우 최고의 통치권자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으며 漢代에는 諸侯國의 통치권자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특히 조선왕 否의 왕위가 아들 準에게 계승되고 있는 사실

고 있다. 또한 준왕은 위만이 망명하여 오자 그를 ‘博士’⁸⁾로 임명하여 ‘主’를 하사하고 백 리의 땅을 봉하여 주며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⁹⁾ 따라서 고조선사회의 통치체계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왕의 명령을 받고 조언하는 중앙 행정 관리로서 ‘대부’가 있었으며, 지방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로서 ‘박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만이 망명하기까지 고조선사회의 통치구조는 왕과 중앙의 대부, 왕과 지방의 박사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陳勝의 亂 이후 고조선이 중국의 수만에 달하는 피난민을 무리없이 수용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상당히 규모가 큰 통치구조를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준왕이 위만에게 축출되는 과정을 보면 군사적인 역량에서는 오히려 위만세력보다 미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¹⁰⁾ 당시의 법속 또한 고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萬民法 차원의 성격으로 이해되는데, 국가의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인 법에 관한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¹¹⁾

을 통하여 부자상속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준왕까지의 계보로서 40여 세대의 존재가 인식되고 있었다는 《三國志》東夷傳 濊條의 기록은 이같은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계승이 훨씬 이전부터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7) ‘大夫’라는 표현은 제후국 지배계층의 총칭으로서 周代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卿·大夫·士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왕이 燕을 공략하려고 하자 대부 禮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고조선의 대부라는 명칭도 이같은 직임에 걸맞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8) ‘博士’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직임이 부여된 직능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漢武帝가 五經博士를 설치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사라는 칭호는 전문적인 직능인 외에 중앙에서 특별히 파견하는 지방관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한대에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 철저하게 수행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파견한 자가 박사였으며, 홍수가 난 地方民에 대한 특별 조치를 취할 때 파견된 자를 박사라고 하였다. 즉 박사는 당시 최고 통치권자의 명을 받아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직임이었다. 그러므로 위만이 부여받은 ‘박사’라는 직함도 특정사항에 제한된 단순한 전문 기능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앙에서 특별히 파견된 지방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趙法鍾, 〈한국고대신분제연구〉, 《國史館論叢》 52, 國史編纂委員會, 1994).

9)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10) 위와 같음.

11) 《漢書》권 28 下, 志 8 下, 地理 燕.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

이상에서 살펴본 청왕 사실이라든가 官階조직·法俗·軍事·문화 단계 등을 통하여 예맥조선 말기에 와서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어 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고고학적으로 청동기문화를 거쳐 철기문화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기원전 4~3세기에는 철제의 도끼류 등이 생산되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¹²⁾ 그러나 이들 유물은 강력한 무기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그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망명한 위만집단이 숙위를 자처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준왕의 군사조직이 그리 강력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른바 기자조선 후기의 양상은 위만조선과 비교할 때 프리드가 상정한 초기국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2) 위만조선의 성립과 변천

(1) 위만조선의 성립

춘추 전국시대 및 진의 통일시기까지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였던 고조선은 진·한교체의 혼란기에 대규모 유민의 유입으로 기왕의 정치체계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권담당 세력의 교체였다. 즉 겐王과 準王으로 이어졌던 예맥조선은 衛滿의 정권찬탈로 인하여 정권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국가체제가 보다 체계화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이를 보여준다.

- ① 燕王 盧綰이 漢을 배반하고 匈奴로 들어가자 滿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溟水를 건너 秦의 옛 空地인 上下障에 居하였다. 점차 眞番과 朝鮮의 蠻夷 및 옛 燕·齊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王險에 도읍하였다(《史記》 권 115, 列傳 55, 朝鮮).
- ② 한나라 때에 이르러 盧綰으로 燕王을 삼으니 朝鮮과 燕은 溟水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 노관이 漢을 배반하고 匈奴로 도망한 뒤 연나라 사람 衛滿도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準에게 항복하였다.

12) 金貞培, <韓國의 鐵器文化>(《韓國史研究》 16, 1977; 앞의 책, 1986).

13) 金貞培, 위의 책, 45쪽.

(위만이) 서쪽 변방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조선의 藩屏이 되겠다고 준을 설득하였다. 준은 그를 믿고 사랑하여 博士로 임명하고 圭를 하사하고 百里의 땅을 봉해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이 망명자들을 유인하여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사람을 준에게 파견하여 속여서 말하기를 “한나라의 군대가 열 군데로 쳐들어 오니 (왕궁에) 들어가 숙위하기를 청합니다”라고는 드디어 되돌아서서 준을 공격하였다. 준은 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인용 《魏略》).

위만조선과 관련하여 우선 위만의 출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즉 그를 古朝鮮系 流民으로 보기도 하고,¹⁴⁾ 漢系 燕人으로 보는¹⁵⁾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¹⁶⁾ 또한 위만의 원래 이름은 滿으로 그를 연의 朝鮮故地 점령에 의해 연인이 된 토착세력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⁷⁾ 즉 중국식의 衛氏姓을 가진 위만은 최초 사료에서 ‘만’으로만 나타나고 있어 그 성격이 보다 비중국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 연의 조선침공에 의해 복속된 고조선지역의 토착적 존재로서 조선계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한편 위의 《魏略》에는 위만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는 중국에서 망명하여 와서 조선의 준왕에게 西界에 거주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그 대가로 조선의 藩屏이 될 것을 맹세하였으므로 준왕은 그를 믿고 박사에 임명한 후 백 리의 땅을 주었다고 하였다. 준왕이 변방의 長에 임명된 위만에게 박사라는 칭호를 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사는 앞에서 본 대부와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예맥조선 후기 단계에 보다 구체적인 관직적 성격의 칭호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박사라는 칭호는 당시 중국사회에서는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14) 李丙燾, 〈衛氏朝鮮興亡考〉(앞의 책), 78~82쪽.

15) 三上次男, 〈衛氏朝鮮의 政治社會의 性格〉(《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16) 위만을 殷人의 후예로 보거나(金哲垞, 〈古朝鮮研究의 回顧와 展望〉, 《제1회 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仁荷大 韓國學研究所, 1987), 중국 정치세력의 일환으로 보아 한국사에서 제외하려는 입장(尹乃鉉, 〈衛滿朝鮮의 再認識〉, 《史學志》 19, 1985)도 제기되었다.

17) 박시형, 〈만조선(滿朝鮮)왕조에 관하여〉(《역사과학》 3, 1963).

서영수, 〈고대국가 형성기의 대외관계〉(《한국사》 2, 한길사, 1994), 256~259쪽.

관리들의 직함으로 사용되었는데¹⁸⁾ 위만에게 사여된 박사라는 칭호도 이와 상통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위만에 의해 국가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고조선사회는 《사기》조선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주변 정치체들을 복속시켜 征服國家的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¹⁹⁾ 한편 주변 나라들과 한과의 경제적 교섭을 중계하여 富를 증대시켜 나갔다.²⁰⁾ 이같은 고조선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 성장은 결과적으로 한의 중국 재통일 이후 동방에 대한 중국의 확장정책과 대립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한나라와 전면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다. 위만조선은 진·한교체기에 요동일원을 중심으로 한 遼東故土에 대한 회복을 추진하였으며 燕·齊지역의 망명자들을 수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계 유민은 秦始皇의 6國 정벌을 통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특히 기원전 226년경에는 연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몽염의 長城수축 등과 같은 대규모 노역동원에 따라 더욱더 증가하였다. 특히 기원전 210년 진시황의 사후에 일어난 진승·항우의 난으로 전국적인 혼란이 가중되자, 연지역뿐 아니라 세·조지역의 민까지 대량으로 망명해 왔으므로 고조선의 서부지역은 이들 유민과 기존 고조선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이같은 상황은 위만으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세력집단을 형성하여 이들 집단이 결국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다음 사료는 정권을 장악한 위만이 어떻게 주변지역에 세력을 뻗어나갔는가를 잘 보여준다.

孝惠高后의 시대를 맞아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자 遼東太守는 국경 밖의 오랑캐를 지켜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모든 蠻夷의 君長이 天子를 뵈고자 하면 막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滿을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였다. 천자도 이를 듣고 허락하였다. 이로써 만은 우수한 무기와 재물을 얻어 주변의 小邑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자 眞番과 臨屯도 모두 와서 복속하게 되니 사방 수천 리의 나라가 되었다(《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18) 趙法鍾, 앞의 글, 113쪽.

19) 金貞培, 앞의 책(1986), 35~41쪽.

20) 崔夢龍, 〈韓國 古代國家形成에 대한 一考察—衛滿朝鮮의 例—〉(《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위만을 외신으로 책봉한 것은 기원전 193~192년경 사이로 추정된다.²¹⁾ 위만은 준왕을 축출한 직후 준왕을 정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고조선과 주변 정치세력과의 갈등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운 국가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요동태수를 통해 한의 조공외교권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위만은 ‘外臣’이라는 형식적 예속방식을 통해 한에 대해서는 주변세력의 침략방지를 보장해주는 한편 그 반대급부로 漢의 철제무기 등을 공급받아 주변세력을 장악하는 기반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위만은 한의 책봉체제에 형식적으로 편입됨으로써 한과의 긴장요소를 제거하고 한나라의 우수한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세력에 대해서는 급속한 팽창을 도모하여 眞番·臨屯 등의 주변정치체를 복속시키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이같은 상황은 다음 사료에 잘 나타나 있다.

孝文帝가 즉위하였을 때에 장군 陳武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南越과 朝鮮은 秦의 전성기에 내속하여 신하가 되었었는데, 그 후에 병력을 갖추고 험한 곳에 의지하여 (중국을) 엿보고 있습니다”라 하였다(《史記》권 25, 書 3, 律).

이같은 언급이 효문제(기원전 179~157) 즉위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의 책봉체제에 편입되어 외신으로 인식되었던 위만조선이 약 20여 년이 지난 뒤에는 중국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 뚜렷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한은 匈奴의 팽창에 매우 긴장하고 있었고 東胡를 격파한 흉노가 이미 濊貊·朝鮮과 접하고 있었으므로²²⁾文帝시기에는 조선을 흉노의 ‘왼쪽 팔’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²³⁾ 사료상에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위만조선은 중국과의 ‘외신’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주변의 정치체를 복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흉노세력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개선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1) 國史編纂委員會, 《譯註 中國正史朝鮮傳》1(1989), 91쪽.

22) 《史記》권 110, 列傳 50, 匈奴.

위의 사료에 나타난 匈奴의 單于 冒頓이 東胡를 파하고 濊貊朝鮮과 접한 시기는 기원전 209년이다.

23) 《漢書》권 73, 列傳 43, 韋賢.

이같은 위만조선의 팽창은 중국뿐만 아니라 기존 토착사회의 여타 정치세력에게도 위협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이같은 상황이 구체화된 사건이 濊君 南閼의 漢 遼東郡 내속이었다.²⁴⁾ 28만여 口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단을 거느리고 있던 존재인 예군 남려의 이탈은 위만의 팽창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의 일례이다. 이를 기화로 漢 武帝는 기원전 128년 蒼海郡을 설치하여 위만조선의 팽창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2년 뒤의 창해군의 폐지는²⁵⁾ 한의 이같은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위만은 처음에 準王 치하의 조선의 西界에서 藩屏으로서 기능하였으나 점차 토착민과 유이민 및 亡民을 수습하여 인구가 급증하였다. 즉 제한된 영역에서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기원과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征服理論’은 국가의 기원을 해명하는 유일한 이론은 아니지만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정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카네이로(R. L. Carneiro)에 의하면 농경민의 옥토가 주변의 자연환경, 즉 산이나 바다·사막 등으로부터 침식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구의 압박을 가져오게 되고, 그와 같은 인구의 압박은 결국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는데²⁶⁾ 위만의 국가형성을 이해함에 있어 이 점 시사하는 바 크다. 즉 위만은 제한된 영역에서 증가하는 인구의 압력을 받아 돌파구를 찾아야 했으며, 당시 중국과의 관계 및 위만의 위치를 감안할 때 준왕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된다. 이같은 상황이 위만조선을 정복국가적 성격을 갖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의 기원문제와 관련하여 위만조선이 성립된 이후의 관직명과 관위체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만조선사회의 상층 지배집단으로는 王·太子

24) 《漢書》권 6, 本紀 6, 武帝 元朔 元年 秋.

《後漢書》권 85, 列傳 75, 東夷 濊 元朔 元年.

25) 《史記》권 112, 列傳 52, 平津侯主父 元朔 三年(기원전 126).

26) Carneiro, R. L., “A Theory of the Origin of the State”, *Science*, Vol. 169, No. 3947, 1970, pp.733~738.

· 裨王²⁷⁾ · 相 · 大臣 · 卿 · 將軍 등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²⁸⁾

위만은 앞서의 준왕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왕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준왕은 중국사회에 ‘朝鮮侯’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王을 ‘自稱’한 것임에 비해, 위만의 경우 이미 왕으로서 손색없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⁹⁾ 특히 위만은 주변지역 사방 수천 리를 장악하여 眞番 · 臨屯 · 沃沮지역이 모두 위만조선의 통치영역에 포섭되어 있었다.³⁰⁾ 따라서 위만조선 당시의 왕은 명실상부한 왕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太子’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독점적이고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왕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권이 단순한 제후왕보다 훨씬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¹⁾

왕 · 비왕과 함께 최상위 신분층과 관련된 명칭으로 ‘相’이 있다.³²⁾ 위만조선의 상은 ‘朝鮮相’과 ‘尼谿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만조선이 포괄하고 있는 지역의 책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존재로 짐작된다. 이들은 君主와는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는 없지만 지역분담을 통해 군주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의 왕실과는 별도로 지방에 토대를 두고 성장한 세력가들로서 독자적인 행동역량도 갖고 있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27) 한편 王과 함께 정치 외교에 관여한 것으로 짐작되는 裨王이 있는데 비왕은 후속하는 정치체의 최상위 통치체계 구성에 있어 二元性을 보여주는 고구려의 古雛加나 신라의 葛文王과 같은 존재의 原形이 아닐까 생각된다.

28) 《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29) 위와 같음.

30)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東沃沮.

31) 《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32) 중국 周代에 처음 나타나는 相은 君主의 사사로운 지시에 따라 祭祀 또는 儀禮를 담당 수행하는 군주 개인의 고용인이었다. 그런데 이 상은 춘추시대 齊 桓公의 정치개혁을 주도한 管仲에 의해 전체 관직을 총괄하는 수상의 기능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전국시대에는 魏 文侯가 이를 설치한 이후 군주를 보좌하여 정부의 백관을 통솔하고 국무를 총괄하였으며 군주와는 비혈연관계로 군주를 보좌하는 보필자였다. 특히 춘추시대의 상은 ‘入則相 出則將’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文武를 겸하였으나 전국시대에는 기능이 분화되어 상과 장군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秦代에는 이를 계승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丞相으로 발전하였다(李春植, 《中國古代史의 展開》, 신서원, 1988).

위만조선의 군사조직은 치안을 유지하고 정복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장군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장군은 전국시대 이후 文武職이 분화되면서 이전에 ‘相’이 겸하였던 무관직이 분리되어 전문무관이 나타나게 되자 이들을 일컫는 용어였다. 따라서 위만조선에 상과는 구별되는 장군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고조선사회가 상당한 직능분화가 진행된 정치체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溟水上軍’·‘溟水西軍’ 등이라 일컫는 단위부대가 있었다는 것은 고도로 편제된 군사조직체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漢과의 화의가 논의될 때 중국측에 군량과 馬 5,000필 및 10,000여 명의 병사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은 당시 위만조선의 군사력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는 위만조선사회가 한이라는 대제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막강하였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된 고조선사회의 상층 지배체제는 중앙의 경우 왕을 정점으로 하여 태자 등을 포함한 왕실이 있고, 副王의 존재인 裨王이 존재하였으며 大臣으로 지칭되는 상·장군 등이 중앙통치의 주요 직능을 분담하였다. 또한 지방의 경우 상·卿 등의 존재가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왕의 통치에 포섭되어 있었으며 박사 등의 명칭을 갖는 존재들이 중앙의 통치력을 대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상층 지배층과 관련된 자료에서 보듯이 위만조선은 정복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후의 발전과 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조직 및 역량으로 보아 고도로 발전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상층 지배층과는 달리 지배구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던 하위 지배계층에 속하는 존재를 볼 수 있다. 즉 準王의 피난시에 同行했던 ‘宮人’과 같은 존재는 통치계급의 일부로서 그 지위가 일반 피지배층 신분과는 구별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비록 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지배계층의 하위를 구성하는 궁인과 같은 중간신분 집단의 존재를 통하여 위만조선의 국가조직이 정연하게 정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³⁾

33)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所引《魏略》。
《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고조선사회에서 피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民이었다. 다음의 자료는 이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樂浪朝鮮에는 犯禁 8條가 있다. 서로 죽이면 그 때에 곧 죽인다. 서로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家奴로 삼고 여자는 婢로 삼는다. 奴婢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50萬錢을 내야 하는데 비록 면하여 民신분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장가들고자 하여도 결혼할 사람이 없다. 이런 까닭에 그 백성들이 끝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는 사람이 없었다. 婦人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商人들이 왕래하면서 밤에는 도둑질을 한 까닭에 민심이 점차 각박해졌다. 지금은 犯禁이 점차 많아져 60여 조항에 이르렀다(《漢書》권 28 下, 志 8 下, 地理).

위의 사료는 피지배의 대상으로서 ‘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범법자의 경우 최하위 신분인 ‘奴婢’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민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었는데 노비의 처지와 대비해보면 그 위상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민은 蒼海郡으로 편성되었던 濊君 南閔의 28萬口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였을 것이며, 고조선과 한과의 전투시에 등장하고 있는 태자를 호위한 人衆 萬餘人, 그리고 淇水上軍과 淇水西軍 등 중심 전투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 민은 고조선이 漢에게 패한 후 설치된 한사군의 규모로 보아 대개 20~30만 명을 한 단위로 하여 편성되어 있었던³⁴⁾ 것으로 짐작된다. 20~30만이라는 단위는 국가에 상당하는 규모이므로 이들 집단이 기왕에 독립적인 정치체였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분화·발전된 조직체계가 이 당시 형성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민 신분 이하의 존재로 ‘노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노비의 존재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재구성하는 관점에서는

準王이 피난할 때 ‘左右宮人’을 이끌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左相과 右相 및 宮人’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단순히 ‘左右의 宮人’으로 해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 경우에도 ‘궁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들 궁인이 어떠한 신분에 속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일반 민 신분과는 일단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된다. 위만이 준왕에게 허위로 漢兵이 공격한다고 보고하게 한 존재와, 朝鮮相 등이 樓船將軍과 휴전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보냈던 존재 등이 궁인과 같은 부류가 아닐까 생각된다.

34) 《漢書》권 28 下, 志 8 下, 地理.

노예제사회의 존재를 상정하게 하는 요소로서 이에 관해서는 기왕의 연구자들이 많은 논란을 벌여 왔다.³⁵⁾ 노비는 사회의 최하층 신분으로서 국가체 구성과 관련된 피정복민 및 범법자에 대한 처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피지배층을 구성하는 유력한 존재였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위만조선이 한반도 북쪽의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잡음으로서 그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중계무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를 성립시키고 성장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위만조선이 중계무역을 통하여 국가로 성장한 것으로 이해한 경우인데³⁶⁾ 위만조선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참고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고조선사회는 이른바 기자조선 후기 단계에는 초기국가적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위만조선의 성립과 더불어 정복국가적 성격이 나타났고, 중국과 대립·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강력한 국가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기원전 3~2세기에 요하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지역에는 細竹里-蓮花堡文化로 불리는 독특한 유형의 철기문화가 전개되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 지역의 철기문화를 고조선과 연의 무역 등 양국의 교섭에 의해 나타난 고조선문화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³⁷⁾ 연·진세력의 동진에 의한 중국문화의 확산으로 이해³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明刀錢을 중심으로 한 이들 유물들이 내륙이나 산간 등지에서 退藏유물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여 연·제·조의 유민의 문화일 것으로 보는 견해³⁹⁾도 있다. 또한 고조선 후기의 대표적 유물인

35) 趙法鍾, 〈韓國古代奴婢의 發生 및 存在樣態에 대한 考察〉(《百濟文化》 22, 1992).

36) 崔夢龍, 앞의 글.

37) 崔夢龍, 〈古代國家成長과 貿易〉(歷史學會 編, 《韓國 古代의 國家와 社會》, 1985).

38) 윤무병, 〈청동기〉(《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0), 326~330쪽.

盧泰敦, 앞의 글, 28쪽.

李鍾旭, 《古朝鮮史研究》(一潮閣, 1993), 180~181쪽.

39) 서영수, 앞의 글, 254~255쪽.

명도전은 대부분 해안가나 내륙 산지에서 단지 등에 담겨져 돌각담이나 돌칸무덤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으며, 명도전과 함께 나타나는 승석문토기도 중국과는 다른 독자성을 보인다. 또 연화보-세죽리유형의 문화가 1세기간의 짧은 기간 존속하였다는 사실은 이 문화가 고조선의 유민과 중국계 망명인의 과도기적 복합문화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세형동검문화는 요동지방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서북부지역에 이르러 완성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범위가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와는⁴⁰⁾ 구별되고 있다. 즉 요동에서 청천강으로 연결되는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와 세형동검문화는 일부 중첩되기는 하지만 기원전 4세기 이후의 세형동검유적이 요동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천강을 경계로 하여 그 이북지역에서는 명도전이 출토되고 있고, 발전된 형식의 세형동검이 평양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이같은 사실은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구별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학계에서는 기원전 3~2세기의 고조선을 요하유역 이동과 청천강 이북지역의 서북조선, 청천강 이남의 동부조선으로 나누어, 전자를 고조선왕의 직할지라 보고 후자를 독자성을 가진 소국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⁴¹⁾ 이에 비해 국내학계에서는 이 문화를 연의 세력이 확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중국과의 활발한 교섭을 염두에 둘 때 향후의 발굴 성과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

위만이 기원전 4~3세기 이래 초기국가로서 존재해오던 濊貊朝鮮(종래의 箕子朝鮮)을 攻滅하고, 강력한 정복국가인 위만조선을 수립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이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은 위만의 손자인 右渠대에 와서 발달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위만조선은 주위의 변방 정치집단들의 對漢交易을 매개함으로써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그들의 대한무역로를 차단할 것을 기도하였다. 이는 주변 정치집단뿐만 아니라 한나라에게도 위만조선이 하나의 위협세력으로 인

40)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는 기원전 3~2세기로 편년되는 평북 영변 세죽리와 요령성 무순시 연화보유적으로 대표되는 유형의 문화를 일컫는 것으로 명도전과 철기유물의 출토를 특징으로 한다.

41) 박진욱, 《조선고고학전서》(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68쪽.
이같은 견해는 1960년대에 고조선의 중심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김석형이 제시하였던 것이다.

식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바로 이 무렵에 우거가 한 무제의 정치·군사적 압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匈奴와 일종의 군사적 제휴를 모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우거⁴²⁾ 치하의 위만조선이 한 나라와 제반 이해관계에서 충돌하게 된 상황이 한 무제로 하여금 조선정벌을 단행케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식에게 전해지고 손자인 右渠에게 이르렀는데 漢의 亡人들을 피어 모은 자가 자못 많았고 또 일찍이 天子에게 입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眞番 옆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코자 하여도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史記》 권 115, 列傳 55, 朝鮮).⁴³⁾

위의 사료는 한과 위만조선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위만조선이 주변 정치세력을 장악한 패자로 등장한 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 동안의 위만조선은 주변 정치세력의 중국내왕을 보장하는 漢의 外臣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같은 형식적 복속과 中繼者로서의 위치를 거부하고

42) 종래에는 우거를 단순히 衛滿의 손자 이름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의 언어학적 연구에 의하면 우거는 고조선시대 공동체 혹은 생활 공동체 연합체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이거나, 또는 사람의 뜻을 지닌 보통명사라는 견해도 있다(조승복, <Reflection upon The Ko Tsosen Word/UK>, 《국내외에 있어서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43) 이 사료에서는 眞番과 인접한 국가들을 衆(무리)과 國(나라)의 두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사기》에서의 衆國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료들, 특히 《한서》와 《자치통감》에 비추어 보아, 한반도 남부의 진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丙巖, <蓋國과 辰國>, 앞의 책, 238~241쪽). 그러나 진국이라는 나라 하나만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 난점이 없지 않으며, 설사 진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인 진국이지, 옛 삼한땅에 진국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진국이나 중국이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존재하였던 정치집단의 성격규명에 있는 것이다. 즉 진번 등의 이름이 아울러 나타나는 것은 조선과 衆國 혹은 진국 뿐만 아니라 진번도 문제의 대상이 됨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가운데 하나인 진국으로 해석할 경우 그것은 진번과 대비되는 정치발전상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국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본 사료를 진번의 위치비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진번을 예로 들어 당시의 정치발전 단계를 고려함이 없이 국명으로서 진국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인가 진국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 가운데 하나인 진국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을 장악하여 이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만조선이 단순한 중계무역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패자로서 한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 匈奴에 대하여 적극 공세를 취하여 河西四郡을 설치하고, 위만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涉河를 사신으로 파견하였으나 회담은 결렬되었다. 한이 진송하던 朝鮮 裨王을 살해하고 귀국한 섭하를 遼東東部都衛에 임명하여 위만조선측을 자극하자, 위만조선은 한을 공격하여 섭하를 살해하였으므로 양측간에 전면전이 개시되게 되었다.⁴⁴⁾

한은 흉노와 南越에 대한 정벌이 일단락된 뒤 기원전 110년부터 전쟁준비에 착수하여 기원전 109년 가을 수륙양군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공하였다. 樓船將軍 楊僕은 齊兵 7천을 거느리고 산둥반도에서 渤海를 건너 王險城으로 공격하여 들어왔고 左將軍 荀彘는 요동지역의 병사 5만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한의 水軍은 주력군인 육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기 위해 列口에서 기다리기로 하였으나 육군의 진격이 늦어져 단독으로 왕험성을 공격하다 조선의 수군에게 패하였다. 육로군도 요동병이 먼저 국경인 패수방면에서 위만조선군에게 격파되었으며 본진도 淇水西軍에게 격퇴되어 교착상태에서 양국간에 화의가 추진되었다. 한무제는 衛山을 파견하여 화의를 타결코자 하였으나 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상호불신과 이에 따른 위만조선의 강경자세, 그리고 위산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화의는 결렬되었다. 그러자 한은 齊南太守 公孫遂를 파견하여 위만조선을 다시 공격하였다. 이후 계속된 1년여에 걸친 전쟁에서 위만조선은 결국 지배층의 분열과 右渠王의 피살 및 主和勢力의 망명 등에 의해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최후까지 항전하였던 大臣 成己 등의 노력도 성과없이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은 붕괴되고 말았다.⁴⁵⁾

그런데 《史記》朝鮮傳에 나타나 있는 전쟁 이후의 관련자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한 무제의 위만조선 공략은 사실상 遠征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정사령관 가운데 수군을 지휘한 누선장군 양복은 초기 전투에서의 실패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하여 斬刑을 간신히 면하고 庶人으로 신분이

44) 서영수, 앞의 글, 255~260쪽.

45) 《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강등되었으며, 육군을 지휘한 좌장군 순체는 공을 다투어 서로 협력치 않고 갈등을 초래하였다 하여 斬하여 저자거리에 시신을 내다버리는 棄市刑에 처해졌다. 또한 화의 추진의 책임자였던 위산 역시 일을 그르친 책임을 물어 참형에 처해졌다. 더욱이 마지막에 파견되어 재침공을 주도하였던 제남태수 공손수도 화의를 진행하려던 누선장군을 감금하고 재공격을 하는 도중에 역시 참형을 당하였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司馬遷은 위만조선 정벌에 참가한 장군들이 모두 極刑을 당하였고 兩軍이 모두 욕을 당해 전투에 참가한 將率 가운데 侯에 오른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였다.⁴⁶⁾

위만조선 원정과 관련된 한나라의 4명의 장군들 가운데 3명이 참형이라는 가장 극악한 형벌을 당하였고 단 1명만이 살아남아 서인으로 신분이 강등당하는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위만조선이 군사적으로 패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전투과정 및 이후 전개된 상황으로 보아 결코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부 지휘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거왕으로 대표되는 주전파세력이 몰락하고, 그 대신에 朝鮮相 路人·尼谿相 參·相 韓陰·將軍 王暎 등의 주화파세력이 중국과의 화의를 통해 새로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중국의 직접적 통제를 위하여 위만조선사회는 ‘四郡’으로 재편되었지만 사실 그 실상은 기존의 토착세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4) 한사군의 설치와 그 변천

(1) 한사군의 설치와 구성

한의 고조선 공략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한의 직접통제를 전제로 한 漢四郡의 설치였다. 종래 한사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위치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그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위만조선의 붕괴를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여타의 모든 정치체의 소멸로 이해하는 선입관과, 이를 대신하여 설치된 樂浪郡으로 대표되는 한

46) 《史記》 권 115, 列傳 55, 朝鮮.

군현의 실체가 보다 과장된 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위만조선의 붕괴는 중국세력과의 갈등해소 방식에 대한 위만조선 지도부의 의견차이에 따른 정권재편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기존의 정치형태가 중국의 직접 지배형태인 군현체제로 재편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토착세력에 의해 유지되었고, 또한 토착세력의 반발에 의해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군은 곧 폐지되거나 중국내로 이동함으로써 결국 축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고조선의 중심지문제와 관련된 논의의 연장으로서 이들 한군현의 위치문제에 관해서도 요동설과 한반도설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은 위만조선을 멸한 후 그 영역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지역에 臨屯郡·眞番郡을 설치하였으며 다음해에는 玄菟郡을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 《史記》朝鮮傳에는 한 무제가 元封 3년(기원전 108) 조선을 평정하고 4군을 설치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나 있고 군이름은 보이지 않는다.⁴⁷⁾ 그런데 《漢書》武帝本紀에는 4군의 명칭이 낙랑·임둔·현도·진번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른바 한사군의 명칭이 처음으로 나타나 있는 셈이다. 한편 《한서》지리지에는 낙랑·현도의 2군만 나타나 있고, 《한서》五行志에서는 원봉 6년조에 “전에 두 將軍이 조선을 평정하여 3郡을 두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논란이 있어 왔다. 즉 당대 자료에 나타나 있는 군현 개설내용이 서로 상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사기》의 다른 기록에 한군현 관련 명칭이나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위만조선 공략과정과 투항한 위만조선 지배층의 전후 처리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이같은 기록상의 차이는 과연 한군현이 후속사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로 설치되었고 직접 통제방식에 의한 편제가 이루어졌는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한서》 등에 나타난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기 보다는 후대에 중국적 天下支配 관념을 바탕으로 위만조선의 지역명칭을 그대로 한군현으로 연결시켜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된다.⁴⁸⁾

47) 《史記》권 115, 列傳 55, 朝鮮.

48) 서영수, 앞의 글, 267쪽.

실제로 한사군은 사료상에 약 26년 동안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진번의 경우 《한서》昭帝本紀에 始元 5년(기원전 82)에 詹耳郡과 함께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둔도 이 때에 함께 파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⁴⁹⁾ 그리고 현도군의 경우도 소제 元鳳 6년(기원전 75)에 그 위치를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짧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군현을 설치하여 해당지역을 통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진번·임둔군의 경우 앞서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주변의 정치세력인 임둔·진번지역에 군현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마치 설치된 것처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왕에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들 군현의 설치의 圖上作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⁰⁾ 또한 현도군은 고구려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고구려세력의 지속적인 반발에 의해 결국 축출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한사군을 중국의 직접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이와는 달리 고조선세력과의 지속적인 군사분쟁상태에서 설치하려고 계획만 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한사군으로 통칭되는 고조선지역의 중국군현 가운데 낙랑군으로 대표되는 위만조선 중심지의 군현 이외에는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며, 현도군의 경우 고조선과의 관계보다는 중국내의 군현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군현의 통치구조는 郡의 長으로 太守가 존재하였으며 그 밑에 丞을 두고, 변두리 군에는 長史를 두었다. 규모가 큰 군의 경우 몇 개의 속현을 다스리는 都尉를 두고 縣에는 만 호 이상의 경우 縣令, 그 이하의 경우 縣長을 두었고 그 밑에는 丞과 尉를 두었다. 사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들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임명된 이후에도 현지에 부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군현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구려가 요동군을 침공하여 帶方令을 죽이고 樂浪太守의 妻子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사실은⁵¹⁾ 낙랑과 대방의 최고 책

49) 《後漢書》권 85, 列傳 75, 東夷 濊.

50) 申采浩, 《朝鮮上古史》上.

51)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임자들이 자신들의 부임지가 아닌 요동지역에 머물고 있었으며, 따라서 군현 통제의 내용 또한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요동군으로부터 관리의 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기에는 중국계 주민들이 군의 속리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또한 낙랑군 내부의 사정도 복잡하여 土人인 王調가 난을 일으켜 낙랑태수를 자처한 사건이 있었는데,⁵³⁾ 후한 때 公孫氏가 요동을 장악하였던 시기(189~238)에는 별도세력에 의해 이 지역이 통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사군의 위치문제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이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진번의 위치에 관해서는 한사군의 명칭으로서 존재하기 이전의 진번 위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在北說과 在南說로 크게 나뉘어져 전통사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⁵⁴⁾

(2) 한사군의 성격과 변천

한사군의 설치에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직접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만조선 사회내부의 지배세력 재편과 연결되어 나타난 정치변

52) 權五重, 《樂浪郡研究》(一潮閣, 1992), 72쪽.

53) 《後漢書》권 76, 列傳 66, 循吏 王景.

54) 韓百謙은 《東國地理誌》에서 이를 狽國舊地 즉 강원도 춘천부로 이해하였고, 李滉은 《星湖僊說類選》에서 眞番을 요하 이서 지역으로 보았다. 한편 洪萬鍾은 《筭五僊》에서 진번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丁若鏞은 《我邦疆域考》에서 재복설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견해는 柳得恭의 《四郡誌》에 계승되었고, 韓鎭書의 《海東繹史地理考》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일인학자 가운데 那珂通世와 白鳥庫吉은 이를 압록강 이북지역에서 찾았으며, 稻葉岩吉은 충청도지역에서, 今西龍은 충청·전북 등지에서 진번의 위치를 찾았다. 이병도는 대방군 영토에서 이를 찾아 재남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도유호는 진번이 현재의 함경도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가 예군 남려의 반란후 기원전 128년에 잠시 존재했던 창해군 영토의 임둔군과 나란히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같이 진번군의 위치가 문제되는 것은 앞서 강조되었듯이 한사군 설치 이전에 연의 침입을 받았던 진번, 조선과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소읍으로서의 진번, 임둔 및 한과 직접 교역코자 하였던 ‘眞番傍衆國’ 등의 존재 때문이다. 따라서 진번의 위치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한사군의 위치는 여러 가지로 비정될 수 있는데, 이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현재의 평양인가 요동지역인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쪽).

화로서 親中國勢力이 중심이 된 정권재편의 일환이었다.

한사군의 변화는 屬縣의 규모와 소속의 변동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한서》지리지에는 낙랑군에 25개의 현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같은 속현의 수는 한의 昭帝 始元 5년에 임둔군과 진번군을 파하여 낙랑과 현도에 편입시킨 이후의 것이다. 더욱이 소제 元鳳 6년에는 현도군이 관할 토착민들의 반발에 의해 그 치소를 옮기고 있다.

한 무제 元封 2년 조선을벌하여 滿의 손자인 右渠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만들었는데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후에 이맥들의 침입을 받아 군을 句麗의 서북으로 옮겼으니 지금 이른바 현도고부가 그 곳이다. 옥저는 다시 낙랑에 속하였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東沃沮).

즉 기원전 108년 설치되었던 한사군 중 기원전 82년에 임둔군과 진번군이 폐지되어 낙랑군과 현도군에 합쳐졌고 기원전 75년에는 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지역으로 쫓겨갔으며 옥저의 경우 낙랑에 속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후한 건무 6년(기원후 30)에는 옥저지역의 東部都尉가 폐지되었으며 《後漢書》지리지에 나타나는 낙랑군의 18성이라는 기록은 계속적인 축소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군현이 토착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한군현 관련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후한 말 요동지역에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던 공손씨가 韓濊 등에 대한 세력강화를 목적으로 후한 헌제의 建安연간(196~220)에 낙랑의 屯有縣 이남지역에 帶方郡을 설치함으로써 기록에 다시 나타난다. 《晉書》地理志에는 낙랑군에 6개 현이, 대방군에 7개의 현이 배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낙랑군과 대방군은 고구려의 성장과 공격으로 313~314년 사이에 각각 소멸되었다.

한군현은 물론 후대 사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중국의 통제와 관리의 파견 등에 의해 직접적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낙랑을 제외한 3군이 설치된 후 20여 년만에 폐지되거나 축출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군현이 기왕의 고조선 전체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직접 통제를 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들 가운데 낙랑군만이 위만조선의 일부지역에 한정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다. 또한 그 존속기간이 길었던 낙랑군에 대해서도 종래에는 초기의 낙랑군의 성격이 소멸될 때까지 시종일관 유지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낙랑군은 중국의 직접통치를 받는 군현적 성격을 띄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성격은 전한시대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중국계 유이민집단의 자치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 즉 종래 이들 군현의 성격에 대해 일인학자들은 중국의 직접지배에 의한 통제를 상정하여 한군현의 성격을 중국의 식민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한군현의 성격을 이같이 볼 수는 없으며 이들은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유이민집단의 자치도시이거나 무역을 위한 조계지와 같은 성격의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⁵⁵⁾

한편 고구려의 大武神王대에 멸망한 樂浪國의 존재를 통해서도 한사군의 성격의 일단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고구려는 대무신왕 20년(37)에 崔理의 낙랑국을 멸망시켰는데⁵⁶⁾ 이는 낙랑이 중국 군현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 정치체로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리의 낙랑국은 기왕에 있었던 낙랑군이 종래에 이해되어온 것처럼 중국의 직접적 통제방식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초기의 군현 설치시기에 구상되었던 통제방식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결국 土着社會의 자립적 성장이 이를 대치하였고, 이들이 고구려의 세력확장에 밀리게 되면서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왕에 확보되었던 중국의 교두보 상실이었으며, 비록 직접적 통제지역은 아니었지만 계속 성장하는 고구려에 대한 견제세력의 상실과 함께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성장하는 백제 및 신라 등에 대한 통제기반의 몰락이었다. 그러자 後漢의 光武帝는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곧 군현을 부활시켰다(44).

55)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三國史記와 樂浪郡에 對한 再檢討—〉(《東亞文化》 7, 1967;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87, 525~533쪽).

56)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 나타나 있는 낙랑의 복속과정에 보이는 樂浪王 崔理는 독립적 정치세력의 왕으로 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가을 9월 後漢의 光武帝가 군사를 보내어 바다를 건너와서 樂浪을 치고 그 지역을 탈취하여 郡縣을 삼으니 薩水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三國史記》 권 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27년).

이같은 후한의 대처는 이후 고구려의 요서진출 등 적극적 대응에 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후한은 그 대신에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백제 등의韓 사회에 대한 통제로 정책을 선회하여 한사회의 君長들에게 爵號와 의복과 印綬 등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廉斯鏑설화이다. 즉 王莽의 地皇年間(20~23)에 辰韓 右渠帥인 염사치가 낙랑의 땅이 비옥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안락하다는 소식을 듣고 낙랑 지역으로 투항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염사치가 그 과정에서 만난 진한의 포로노예로 있던 중국인 好來 등 1,500명의 존재와, 建武 20년(44) 韓廉斯人 蘇馬謨가 낙랑군을 찾아 韓廉斯邑君으로 봉해진 사실 등은⁵⁷⁾ 후한과 이들간에 상당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중국 군현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성장에 의한 갈등증대로 인하여 주된 관심의 대상을 韓濊세력으로 바꾸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桓帝·靈帝 말기에 한예가 강성하여 漢의 군현이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公孫氏에 의한 帶方郡의 설치 및 景初年間(237~239)에 대방태수와 낙랑태수를 파견하여 두 군을 평정한 사건 등은 이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준다. 특히 辰韓의 臣智가 部從事 吳林과의 대립으로 대방군 崎離營을 공격하여 대방태수 弓遵이 전사한 사실은 이같은 갈등의 대표적 사례이다.

요컨대 한군현은 초기 고조선지역 및 고구려 등의 세력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직접적인 지배를 기도하였으나, 이같은 초기의 목적은 점차 토착사회의 반발과 공격에 의해 대부분이 축출·쇠퇴되고 그 성격마저도 토착사회와 병존하면서 중국계 유이민의 자치세력 또는 中繼貿易의 중심지 등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었다. 특히 후한대에는 고구려 등의 성장에 의해 더 이상 기왕의 고조선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韓·濊·倭 등의 세력과 朝貢貿易 등의 중계지로서 기능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축소·해

57) 《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 韓.

체되었다. 그러므로 낙랑 등의 존재는 정치적 의미에서 평가되기보다는 文化中繼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金貞培〉

3.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 경제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인 衛滿朝鮮을 포함하는 고조선의 문화내용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부족한 문헌자료보다는 고고학적인 자료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라는 것도 그 자체의 확실한 명문이 나와 있지 않는 한, 그 주체가 고조선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어렵다. 하지만 문헌자료에서 일정한 범위가 정해지면 그 지역의 문화상이 어떠한지 고고학에서 잘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고조선 연구는 문헌자료가 부족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의 강역을 추정하는 등의 예가 많다. 이러한 탓으로 고조선 연구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우선 고조선의 문화상을 밝히려할 때 먼저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는 고조선을 檀君朝鮮·箕子朝鮮·위만조선의 3단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용어와 이 세 가지의 조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북한에서는 기자와 위만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고조선이 청동기시대에 출현한 국가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존속시기를 기원전 1000년대 전반기의 청동기문화에서 시작하여 철기문화시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표지적인 문화로 각각 美松里(평북 의주군)－崗上(遼寧 旅大市)시기(전기: 기원전 8~7세기)와 細竹里(평북 영변군)－蓮花堡(遼寧 撫順市)유형(후기: 기원전 3~2세기)으로 나눈 바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편년은 미송리－강상시기와 세죽리－연화

1) 이순진·장주협, 《고조선문제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73).

최택선·이란우,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사회과학출판사, 197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 고대편(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보유형문화 사이에 4세기 정도의 시간폭을 대표할 만한 문화의 공백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 없어,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정치체가 일관되게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조선의 고고학적 문화를 고조선 전기문화의 형성(미송리-강상시기)→고조선 전기문화의 발전→고조선 후기문화의 형성→고조선 후기문화의 발전(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 평양지역의 세형동검문화)으로 이해하여 이전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²⁾ 이에 비하여 남한에서는 고조선에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³⁾ 고조선에 단군조선만을 포함시키는 등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용어의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확정시키는 일이 고조선 연구에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고조선의 강역문제는 고조선에 관한 여러 문제 중 가장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헌 자료로 볼 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적인 강역의 추정에도 여러 이견이 있다. 대체로 積石塚(돌무지무덤)과 石棺墓(돌상자무덤), 미송리형토기, 細文鏡(잔 줄무늬거울), 琵琶形銅劍(요령식 또는 만주식 동검)의 분포가 고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비파형동검과 같은 하나의 유물로만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하는 경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유적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중심지와 관련된 문제는 고고학적 발굴뿐 아니라 문헌 자료가 절대로 부족하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도 대부분 단편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고조선의 실체(정치체제)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박진옥, 《조선고고학전서 : 고대편》(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3) 金貞培, 〈古朝鮮의 再認識〉(《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 出版部, 1985).
김정배는 고조선을 단군조선과 기자조선(濊貊朝鮮)으로 나누어 보았다.

4) 李基白, 〈古朝鮮의 國家 형성〉(《韓國史 市民講座》2, 1988).

고조선에 단군조선만을 포함시키는 견해는 기자의 東來를 부인하고 기자조선이라고 되어있는 사서의 기록을 단군조선 이래의 고유의 왕조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세번째로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와 고고학상 나타나는 문화적인 영역의 시간적·공간적인 범위는 반드시 동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조선의 강역에 관해서 학자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더욱 심도있게 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이러한 변천과 아울러 고고학적인 문화도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문화의 변화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의 변천 또는 발전과정 사이에 어떠한 연동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자면 우선 고고학상에 보이는 고조선과, 《史記》朝鮮列傳 등의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인 위만조선과의 관계를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비파형동검(또는 遼寧式銅劍)의 사용이 끝날 무렵인 기원전 5~4세기경에는 요동지방과 우리 나라 서북지방에 철기가 도입되기 시작하고,⁵⁾ 기원전 3~2세기부터는 明刀錢과 고도의 철제 농기구와 나오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문화와 細形銅劍문화가 발생한다.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은 고고학상으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전기(중전의 초기 철기시대)로 나누어지는 지표유물이 된다. 특히 세형동검의 경우 한반도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요령지방과는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당시 한반도에도 정치·문화적으로 일정 정도 변혁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문화의 변화와 문헌상에 보이는 정치적인 변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위만조선까지 포함하는 문헌상의 고조선의 변천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시기로 先秦文獻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고조선의 이름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기록으로 《管子》揆道편과 輕重甲편에 고조선의 특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⁶⁾ 《관자》가 쓰여진 것은 기원전 4세기

5) 崔盛洛, 〈鐵器文化를 통해서 본 古朝鮮〉(《國史館論叢》 33, 國史編纂委員會, 1992), 59쪽.

이지만 이 기록의 무대는 기원전 7세기이므로 적어도 기원전 7~4세기 무렵에 고조선이 존재하여, 중국과 교역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두번째 시기로 燕과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시기이다. 그것은 《三國志》에 인용된 魏略에서 볼 수 있는데, 연이 稱王하자 고조선도 왕을 칭하고 연과 대립하다가 燕將 秦開의 침략을 받고 그 세력이 한풀 꺾이는 시기를 말한다. 물론 기록에서 특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의 전성기가 昭王대임을 감안한다면 기원전 4세기 무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연의 철기 제작기술이 도입되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 시기는 準王이 衛滿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위만조선이 개창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위만조선은 기원전 198년에 성립되어 기원전 108년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고조선의 발전과정을 5단계로 추정할 견해도 있다. 小國 형성 이전의 族長社會를 기원전 15~12세기, 소국시기의 고조선을 기원전 12세기 말~9세기, 소국연맹시기의 고조선을 기원전 8~5세기, 소국병합시기의 고조선을 기원전 5세기 말~4세기 말로, 평양으로 이동한 후의 고조선을 기원전 4세기 말~위만조선 이전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편년 설정은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사료를 조화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나 소국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또다른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를 다시 고고학적 문화로 분류한다면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의 발전이 소국 이전의 족장사회, 고조선 이전의 비파형동검문화를 소국발전시기, 비파형동검의 典型과 변형이 쓰여지는 시기가 소국연맹시기, 초기 세형동검 또는 중간형의 동검이 쓰이는 시기가 소국병합시기이며, 그 이후 평양천도 후의 고조선은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와 평양지역의 세형동검문화로 이분된다.⁷⁾

6) 《管子》揆道 “吾聞海內玉幣有七英… 發朝鮮之文皮”.

《管子》輕重甲 “桓公曰 四夷不服… 發朝鮮不朝… 一豹之皮, 然後八千里之 發朝鮮可得而朝”.

《山海經》에도 조선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있다.

《山海經》海內北經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山海經》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名曰朝鮮天毒 其人水居 畏人愛之”.

7) 李鍾旭, 《古朝鮮史研究》(一潮閣, 1993).

강역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너무나 많은 의견이 존재해서 여기에서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대체로 요하 이동에서 평양지역까지를 고조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요하 이동에서 평양지역의 청동기문화의 발생·발전과 철기문화의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고조선 전기와 청동기문화

요동지구의 청동기문화는 (1) 비파형동검 이전의 청동기문화, (2) 비파형동검이 쓰이지만 고조선이 출현하지 않은 시기, (3) 비파형동검 전형이 쓰이는 고조선 초기, (4) 비파형동검 변형과 墨房里(평남 개천군)형 토기가 쓰여지는 고조선 중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⁸⁾

(1) 비파형동검 이전의 청동기문화

요동지구의 청동기문화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가 펼쳐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遼寧 동부지구의 廟后山과 望花 유형의 문화 등이 존재했으며, 瀋陽지역은 高台山·新樂上層·요령 북부지역에는 順山屯文化 등이 알려져 있다. 요령 남부지구의 경우 于家村과 雙陀子遺蹟을 들 수 있다.⁹⁾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문화로는 구체적으로 적석묘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의 시작은 적어도 기원전 13세기는 될 것으로 보여진다.¹⁰⁾ 이 시기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발전이 진행되어 씨족공동체 안에서 빈부의 차이와 불평등관계가 보인다. 대표적 유적으로 절대연대가 기원전 13세기인 大連 우가촌의 砬頭積石塚을 들 수 있는데, 58개의 석곽이

8) 이와 같은 분류는 朴淳發, 〈한강유역의 청동기·철기시대〉(《한강유역사》, 민음사, 1993)를 참조하였다.

9) 孫 力, 〈試談遼寧地區的商周文化〉(《北方文物》 85-3, 1985).

10) 于家村 상층의 경우 3280 ± 85 , 3230 ± 150 이(《考古》 80-4, 《文物》 79-12), 쌍타자 상층의 경우 3135 ± 90 의 연대가(《考古》 72-4) 나왔다. 물론 이를 수료보정한다면 기원전 15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와 문헌 자료 등을 참고한다면 대체로 13세기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한 적석내에 분포되어 있어서 같은 친족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 안에서 보이는 무덤간의 부장품의 차이는 재산상의 불평등 및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적석묘는 주로 요동반도지역에 한정되어 분포되어 있는데, 이후의 시기에서도 계속 사용되어, 崗上・樓上・臥龍泉 등 비파형동검을 반출하는 적석총도 존재한다. 이외에 고인들의 존재도 비교적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고인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위 북방식(황해북도 연탄군 五德型 : 전형 고인돌)과 남방형(황해북도 황주군 沈村型 : 변형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시기에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¹¹⁾ 적석묘가 요동반도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여 고인돌은 요동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蓋石墓(큰돌뚜껑무덤) 역시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비슷한 지역에 분포하는데 이들의 연대는 아직 절대연대가 확실하지 않지만, 고인돌의 경우 청동기가 출토된 예가 없고 개석묘의 경우 많은 청동기가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적석묘가 더 일찍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서북지방과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고인돌은 이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비파형동검시기의 고조선문화

비파형동검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요동과 요서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길림·장천·하북성 일대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비파형단검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파형으로 생긴 칼날과, 손잡이가 별도로 구조된 조립식이라는 점이다. 즉 손잡이 부분을 따로 구조하여 칼-칼자루-칼자루마추개-칼자루-劍把頭飾으로 검이 이루어져 있다. 같은 시기에 내몽고지역에 분포해 있던 오르도스(Ordos)식의 경우 조립식이 아니며, 손잡이에 동물문양을 한 비수모양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양자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桃氏劍의 경우 손잡이까지 한번에 구조하여 비파형단검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11) 중국에서는 五德型을 石棚, 沈村型을 大蓋石墓라고 한다. 遼寧 新金縣 雙房의 경우 두 묘제가 혼재한다.

비파형동검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첫번째로 요서지방에서 요동지방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으로 南山根・十二臺營子の 유적으로 보아 이 문화의 주체는 東胡이며 크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아갔다는 주장인데 이는 중국측 학자들의 설이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요동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전파되었다고 보며, 기술의 발전상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지 검의 형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문화상의 전반적 고찰 및 확실한 절대연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비파형동검의 사용 주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비파형동검 출토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에 준하며 따라서 고조선인이라고 보는 견해를 비롯하여 동호족 또는 東胡-山戎이 공유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 밖에 朝鮮・眞番・濊貊이 공유했다는 견해와 동호에서 조선・진번・예맥으로 전파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비파형동검의 연대는 197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원전 7~8세기로 보았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雙房돌무덤을 비롯한 몇 곳에서 더 이른 식의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어 그 절대연대를 기준으로 기원전 12세기 정도로까지 소급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비파형동검이 고조선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했다는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조선 성립 이전에 비파형동검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 연대를 보면 대체로 비파형동검 古式은 기원전 11~9세기이며, 다음으로 典型은 기원전 8~7세기, 변형은 기원전 6~5세기이며, 이후는 세형동검이 사용된 4~3세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파형동검문화는 크게 요서지방의 夏家店 상층문화・요동지방-서북한지방의 미송리형토기문화・한반도 남부의 지석묘・길림지방의 西團山文化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요동지방-서북한지방의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주변지역의 문화도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가. 비파형동검이 쓰이나 고조선이 출현하지 않은 시기(기원전 11세기~9세기)

비파형동검이 만들어지지만 아직 고조선이 출현하지 않은 시기가 있다. 이를 북한의 경우 ‘小國’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어떤 성격인지는 확실

하지가 않다.¹²⁾ 북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동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쌍방 6호 돌무덤에서 나온 것인데 쌍방 6호는 부장품이 풍부하며 절대연대는 기원전 12세기에 해당한다. 이후 비파형단검과 미송리형단지가 부장되는 석관묘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묘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의 미송리형단지는 북한에서 ‘전형’이라 부르는 것이며 대표적인 新岩里유적의 경우 전형 미송리형토기(단지)가 나오지만 줄무늬가 3~4줄이고 손잡이도 위를 향하고 꼭지손잡이는 없으며, 겹아가리의 심발형토기도 이와 함께 출토되고 있다. 新金縣 쌍방 6호 석관묘의 경우 ‘전형 미송리토기(단지)’, 겹아가리의 심발형토기와 함께 초기 형태의 비파형단검이 발견되었다. 비파형단검의 경우 북한학자의 분류에 따르면 첫째 부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검의 길이가 짧고 양쪽의 돌기와 불루기가 뚜렷하며 피홈이 검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주요 유적은 요령성에서는 신금현 쌍방·遼陽縣 二道河子·吉林省 星星肖·清原縣 門臉과 李家堡·盤石縣 小西山 등으로 모두 석관묘이다.¹³⁾

나. 고조선 초기(기원전 8~7세기)

대표적 유적으로 崗上무덤을 들 수 있다. 무덤구역은 20m×28m이며 그 안에는 20여 개의 무덤구덩이가 있고 위에는 막돌을 덮은 돌무지무덤이다. 중앙에 돌곽을 중심으로 백수십 명의 순장노예가 있었는데, 이들 순장노예는 학자에 따라서 노동노예라고 보기도 한다. 부장품은 불에 맞은 흔적이 있으

12) 북한에서는 요동지방의 오덕형 고인돌 중에서 대형이 고지에 단독으로 위치하며, 여러 지역을 포괄하여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아 종족연합 추장(군사령관 또는 족장)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습되었을 것인데 무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다른 제사나 신앙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13) 북한이 설정한 고조선 이전의 비파형동검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절대연대를 들 수 있는데, 그 예가 많지 않은 데다가 유물간의 상대연대가 치밀하지 않으며, 그나마도 몇 가지 유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북한은 요동기원설에 따라 요동지역의 비파형단검을 요서지방보다 소급시켜서 보기 때문에 요서기원설의 중국과는 다른 연대관을 보여준다. 여하튼 북한이 설정한 고조선 성립 이전의 초기 비파형동검이 과연 시기차이인지 아니면 동시기에 공존한 형식상의 특징인지는 아직 속단을 내리기 어렵다.

며 6자루의 비파형동검, 26개의 청동기 등이 출토되었다. 중심에 2개의 돌곽을 중심으로 작은 돌곽들이 배열되어 있다. 강상이나 樓上유적은 지방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앙의 대노예소유자들은 이보다 훨씬 거대한 분묘를 축조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나 아직 발굴된 예는 없다.

이 시기의 비파형동검은 그 길이가 길어지고 비파형단검의 폭은 상대적으로 이전 시기보다 좁다. 미송리형토기와 공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피홈은 약간 내려와서 시작한다. 유적으로는 강상·十二臺營子·南山根 101호·錦西縣 烏金塘·建坪縣 孤山子와 大拉罕溝 등이 있다.

다. 고조선 중기(기원전 6~4세기)

비파형단검은 돌기와 단검 하반부의 폭이 좁아진다. 길이는 길어지며 피홈은 상당히 내려와서 시작하는 퇴화형으로 세형동검과 그 형태가 비슷해진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瀋陽 鄭家窪子 1지점·6512무덤·錦州縣 寺兒堡·旅大市 官屯子·海城縣 大屯·撫順·樓上·臥龍泉·喀左縣 南洞溝 등이 있다. 대부분 청동검과두와 공반이 된다.

이 시기의 토기는 서북지방의 경우 목방리형토기가 공반되며, 요동지방은 정가와자의 경우와 같이 長頸壺와 공반이 된다. 정가와자 제3지점의 경우 목곽무덤으로 강상이나 누상과는 형식도 다르며 순장한 예도 없다. 특징적인 유물로 수십 개의 청동단추를 붙인 활집과 가죽장화를 들 수 있다.

라. 주변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

가) 하가점 상층문화

고조선의 성립과 직결되는 비파형동검과 관련하여 요서지방의 夏家店(내몽고 赤峰) 상층문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가점 상층문화는 중국에서는 東胡의 것으로, 북한에서는 貊(=동호)과 發族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화의 비파형동검은 요동과 비교해서 길이가 긴 것만 발견되며, 鍔柄式이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표 1〉 하가점 상층문화의 시기구분¹⁴⁾

초 기	비파형단검 발생 이전시기(적봉 紅山後, 河北省 小官莊, 내몽고 宇城縣 南山根, 하가점의 돌상자무덤과 일부의 돌곽무덤)
중 기	첫째 부류의 단검(남산근 101호, 十二臺營子 1·2호, 烏金塘 3호, 대랍한구 741호)
후 기	둘째 부류의 비파형단검(朝陽縣 木頭溝 1호, 喀左縣 南洞溝, 北票縣 河家溝, 錦州縣 寺兒堡)

주요한 유물로는 부채살 주머니도끼(扇形銅斧)·툽날자루식 칼·세문경·석관묘·석곽묘가 있으며 주거지는 원형의 竪穴주거지로 이 안에 저장공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오르도스-카라수크, 황하의 중국문명과 인접하여 요동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는 북방의 청동단검과 중국의 은·주시대의 청동기가 공반되는 양상이 있는 반면, 요동 문화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선형동부·圓板형기·세문경 등이 있어서 주변 지역의 여러 문화적 특징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대체로 하가점 상층문화와 고조선의 문화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일정 정도 유사한 청동기문화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요서지역의 비파형단검문화는 요동지방이나 한반도지역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세형동검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나) 서단산문화

吉林지역의 西團山문화의 범위는 길림성의 길림·長春지구, 四平지구 이외에 서쪽으로는 요령 무순지역까지 펼쳐져 있는 문화로서 이 지역 청동기문화를 대표한다. 서단산문화의 묘제는 대부분 석관묘이며 후기에 들어서 옹관묘나 토광묘가 일부 사용된다. 서단산문화는 그 문화상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절대연대 자료나 층위적인 증거가 적어서 학자간에 문화발전에 대한 견해차가 많지만 대체로 보아 3시기로 나눌 수 있다.¹⁵⁾ 초기는 서단산·星星哨·騷達溝·小西山 등의 유적으로 대부분 箱式棺이며 부곽을 배치한 예

14) 황기덕의 분류에 따른 것인데, 황기덕은 하가점 상층문화가 비파형동검이 나온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로 대별된다고 보고 있다(황기덕, 〈요서지방의 비파형 단검과 그 주민〉,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15) 董學重, 〈試論吉林地區西團山文化〉(《考古學報》83-4, 1983).

가 많다. 상한 연대는 성성초의 절대연대에 따라 기원전 12세기(樹輪補正을 하면 13세기)로 본다. 청동기는 성성초와 소달구에서 소수 발견되었는데 모두 초기 형식이다. 토기는 저화도 소성의 褐色 砂質土器로 기형은 매우 간단하다.¹⁶⁾ 중기는 兩伴山·갈석산·장사산·泡子沿前山·驛達溝·小西山 등을 들 수 있으며 연대는 장사산의 절대연대가 기원전 4세기 말(2340±75, 수륜보정 연대로 기원전 390년)로 전국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막돌을 쌓아 만든 석관묘가 많으며 묘광바닥에는 황토를 깔았다. 이러한 석관묘를 토광묘로 이행하는 과정중에 간략화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은 나오지 않으나 琵琶形銅劍가 나온다. 그 밖에 斧와 刀 등의 생산공구나 청동단추·連珠장식 등의 장식품이 증가된다. 토기는 초기와 거의 비슷하다. 후기는 土城子·東團山·楊屯 등이 있는데, 양둔의 탄소연대가 2165±75로 이들은 秦·漢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묘제는 석관묘 이외에 토광묘나 옹관묘가 출현하게 된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청동기의 예가 적어지는데 아마 철기 사용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이들 유적은 고조선의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북한은 경우 夫餘, 그리고 중국의 경우 肅慎·挹婁 등의 문화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지역의 문화를 요서지방의 하가점 상층문화와 관련시키는 주장인데,¹⁷⁾ 이것은 요서지방과 이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를 암시하는 것이다.

다) 한반도지역

남한지역의 비파형동검 출토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것은 약 44예로¹⁸⁾ 남한 역시 비파형동검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쌍방이나 성성초와 같은

16) 북한의 경우 초기 문화 중에 비파형동검을 부장하지 않은 묘장만을 西團山문화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길림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라고 본다. 따라서 청동기가 나오지 않은 서단산·소달구 등만을 서단산문화로 규정하고 있다(황기덕, <길림장춘지방 비파형동검문화의 성격>, 《조선고고연구》 86-3, 1986).

17) 董學重, 앞의 글.

18) 이영문, <韓半島 出土 琵琶形銅劍 形式分類 試論>(《博物館紀要》 7, 檀國大 中央博物館, 1991).

초기 형식만을 제외하고 전형·변형·초기 세형동검(경기도 양주 上紫浦里式) 등도 모두 출토되고 있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비파형동검을 제작·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松菊里의 경우 석관묘에서 동검이 나왔으며, 주거지에서는 비파형동검의 공반유물인 선형동부의 거푸집까지 나와서 비파형동검을 제작·사용하였음이 더욱 확실해졌다. 아직까지는 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일대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더욱 자세한 자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2) 후기 고조선과 철기문화(기원전 4~2세기)

고조선 후기¹⁹⁾의 문화는 고고학상에서 볼 때 철기시대 전기(종래의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철제 무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車馬具가 존재하는 등 전쟁도구도 발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상당히 보편화된 철제 농기구는 당시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의 화폐가 대량으로 발견된 점은 그러한 발달된 생산력을 토대로 하여 주변지역과 교역이 활발했던 증거로 볼 수 있다. 철기의 제작은 철기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철광의 발견과 확보, 채광 등과 무기의 제작 등을 위해서 직업의 전문화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만조선을 포함한 고조선 후기의 고고학적 연구를 서북지방과 요동지방의 철기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이 시기의 문화는 크게 (1) 기원전 4세기의 비파형동검-세형동검의 중간형이 보이고 철기가 조금씩 등장하는 시기, (2) 기원전 3~2세기의 세죽리-연화보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전성기를 맞은 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시기를 문헌과 관련시킨다면 연과 맞서서 稱王을 하며 대립한 시기와 準王-위만조선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철기가 도입된 시기에 관하여 북한에서는 기원전

19) 후기 고조선에 위만조선이 포함된다.

8~7세기에 이미 철기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²⁰⁾ 이 연대를 인정할 경우 우리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철기 제작기술을 가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로 위만조선 이전에 철기가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만조선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3~2세기 문화에서는 철제 농기구와 무기가 제작되는 등 철기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및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온다.

고조선의 철기는 기본적으로 燕나라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연나라는 전국시대 말기부터 선진적인 철기문화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문화는 크게 2단계로 주변지역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²¹⁾ 1단계는 연의 전성기인 昭王대에 행해진 것으로 秦開의 동호와 조선공략이 계기가 되었고, 2단계는 진의 건국 후 연의 유이민이 이주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연나라에서는 4세기에 중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철기술을 가졌고, 그러한 기술이 우리 나라에 전파된 것이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길림지역은 연나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인 철기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2단계의 철기문화의 전파는 고조선의 철기문화를 설명하는데 비교적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기원전 4세기 고조선지역

기원전 4세기의 경우 남한에서는 중간형,²²⁾ 또는 변형 비파형동검, 북한에서는 초기 세형동검이 보이는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의 무덤으로는 석곽묘와 적석묘가 있다.

20) 철은 기원전 8~7세기에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연철 단계는 기원전 8~7세기, 고온환원법의 발전된 방법은 기원전 3~2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보았다(박영초, <고조선시대에서의 제철 및 철제가공기술>, 《조선고고연구》 89-1). 물론 이 연대는 지나치게 올라간 것이나, 燕에서 전파된 발전된 방법 이전에 독자적인 제철기술이 함경도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1) 이남규, <燕國鐵器考> (《第35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2).

22) 李清圭,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1993).

석곽묘로는 旅大市 尹家村 하층이 대표적인데, 목관을 쓰고 그 주위에 석곽을 쌓은 것이다. 이 외에 丁峰里도 있다. 적석묘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묘제로 강상·누상과 같은 적석묘의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五道嶺溝門의 유적은 고구려식의 적석총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이 유적에서 발견된 동검은 가운데 절대 부분에서 동검의 폭이 넓어진 채로 동검 끝까지 가는 독특한 형태이다. 이 밖에 토광묘로 孤山里와 遼陽 亮甲山 二道河子 등이 있으며, 옹관묘로 정가와자 2호와 明沙里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문화는 동검의 특징에 따라 크게 2개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령-서북한지역의 유적으로는 윤가촌·이도하자·정가와자 등으로 동검의 하반부가 불룩하며 그자형의 검과두 등 비파형단검의 잔재가 보이는 것이며, 길림-집안지역에는 大靑山과 오도령구문 등에서 나오는 특이한 비파형동검이 보인다. 윤가촌의 경우 동경·동모·동부 등이 공반되는데, 대청산과 오도령구문의 경우 그러한 예가 없다는 지역적 특성이 보인다.²³⁾ 토기의 경우 윤가촌식에서만 많이 나오는데, 호·발·豆形토기 등이 보이며, 대청산식에서는 토기 출토예가 거의 없다.

연의 철기도입과 윤가촌 하층의 연대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기의 가운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파형의 하한이 기원전 5세기이며 청천강 이북지역에 명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에는 세형동검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4세기경으로 보여진다.

(2) 기원전 3~2세기의 철기문화

이 시기가 되면 요동-서북지방의 문화는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고고학적인 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역성과 위만조선의 정치적인 강역을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위만조선 및 후기 고조선(진개의 침략 이후)의 강역으로 생각되는 지역은 학자간에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요하 이동~평양지역, 또는 압록강~평양에 이르는 지

23) 李清圭, 위의 글.

반면에 박진옥은 대청산과 윤가촌 식을 시기차의 반영으로 보았다(박진옥, 앞의 책).

역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의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요하 이동~청천강까지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문화가, 평양지역은 세형동검문화가 발달하였다.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지역에서는 철제로 만든 농기구 및 무기가 많이 제작되고, 明刀錢이 대량으로 발견되나 무엇보다도 평양지역이나 남한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세형동검은 출토되지 않는다. 바로 전시기인 기원전 5~4세기에는 윤가촌 등에서도 세형동검 1식(남한에서는 변형 비파형동검이라고도 함)이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영향으로 기존의 문화가 상당히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평양지역은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세형동검이 제작되고 토광묘가 발달한다. 그러나 세죽리-연화보문화 지역과는 달리 명도전이 발견되지 않으며, 철기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장품에서는 청동장식이나 세형동검과 차마구 등 청동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 지역에서 철기가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시기는 낙랑군 설치 이후이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문화에서 보이는 차이에 주목하여 청천강 이북지역만을 고조선의 강역으로 보거나,²⁴⁾ 평양지역의 세형동검문화만을 고조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²⁵⁾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두 문화가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이루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견해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속단을 내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첫번째로 문헌 자료를 보자.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자체가 이주민집단과 토착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부에서도 토착적인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즉 《史記》朝鮮列傳에 나오는 王儉城의 위치로 알려진 평양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가 영위된 것은 토착적인 문화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천강을 경계로 명도전이 출토되고

24) 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一志社, 1986).

윤내현은 그 후에 그의 견해를 수정하여 한반도 전역을 고조선의 강역으로 보고, 그 남쪽 경계를 한반도 남해안에 이른다고 하였다(尹乃鉉, 《한국고대사》, 삼광출판사, 1989).

25) 李清圭, 앞의 글.

李鍾旭, 앞의 책, 147쪽.

있고²⁶⁾ 발전된 철기문화인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문화가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준왕이 위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 서변지역에서 중국의 선진적인 철기가 많이 쓰이는 이질적인 문화가 영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번째로 고고학적으로 보아서 세죽리-연화보문화지역은 철기 이외에는 토착문화와의 관련성이 많다는 점과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의 철기가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²⁷⁾

고고학적인 문화가 곧바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문화까지가 고조선의 후기문화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동일한 문화를 영위하는 지역내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또는 문화적 성격이 차이가 나는 지역들끼리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문헌에 보이는 정치적인 강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자료에 나타난 문화를 정치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그것을 다시 문헌 기록과 조화시키는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고조선 후기문화를 언급함에 있어서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문화와 평양의 세형동검문화를 살펴보겠다.²⁸⁾

가.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문화

주거유적으로 細竹里유적²⁹⁾은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문화층이 있는 유적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2기의 집자리는 구들이 사용된 지상가옥으로 드러났다. 이 유적에서는 많은 철기와 청동기가 출토되었고, 특히 제30호 집자리에서는 명도전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철기로는 호미·괭이·낫·도끼·비수 등

26) 명도전이 출토된 지역은 청천강 이북지역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위만이 교역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교역의 산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7) 長水 南陽里와 扶餘 合松里에서 세죽리-연화보유형의 鐵斧가 발견된 바 있다.

28) 물론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며 두 문화 모두가 고조선의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문화 모두 고조선의 문화일 가능성이 크고 아직 확정된 후기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 학자간의 통일된 견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 잠정적인 안이다.

29) 김정문, <세죽리 유적발굴 중간보고(1)> (《고고민속》 64-2, 1964).

이 있고, 청동기로는 동촉과 검파두 등이 있으며, 토기로는 회색의 打捺文토기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蓮花堡³⁰⁾에서는 약 278m²의 유적이 발굴되어 돌담과 노지 2개, 채 구덩이 등이 드러났다. 이상의 유구에 대해서는 실측도나 사진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철기로는 호미·괘이·낫·도끼·송곳 등이 발견되었고, 청동기로는 활촉이 나왔다. 한편 화폐로는 半兩錢이 나왔으며, 토기는 회색으로 활석이 섞인 繩蓆文토기가 나왔다. 尹家村³¹⁾ 상층(기원전 3~2세기)에서 무덤과 함께 저장공 2개가 발굴되었는데, 움의 지름은 1.6m이며 유물은 대부분 기와와 회색 승석문토기 조각이다.

이 밖에 정식 발굴이 아니라 지표조사되거나 파괴 후 수습 조사된 유적을 보면 堂山里유적에서 불에 탄 집자리가 일부 확인되었고, 遼寧 錦州市 大泥窪유적 등에서 명도전과 함께 생활유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³²⁾ 일제 강점기에 동아고고학회에 의해서 조사된³³⁾ 豹子窩 高麗寨 및 旅順 勺家窪 牧羊城址에서도 이 시기의 유적이 발견되었으나, 층위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여러 시기의 유물이 같이 보고되어서 정확한 문화상은 알기 어렵다.

분묘유적 가운데 이 시기의 무덤으로는 土墳墓·貝墓(조개무덤)·甕棺墓(독무덤) 등이 있다. 그 중 조개무덤은 요동지방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일본의 동아고고학회에 의해서 목양성지·윤가촌·旅大市 劉家窪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 조개무덤들은 장방형의 광을 파고 그 안에 광벽과 일정한 사이를 두고 나무판자로 광을 만들어 시체를 안치한 것이다.

옹관묘는 정가와자와 윤가촌의 것이 대표적이다. 정가와자³⁴⁾에서는 독무덤 1기를 발굴했는데, 3개의 단지를 맞물려 놓은 것이다. 토기들은 굵은 승석문의 갈색 그릇과 가는 승석문의 회갈색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윤가촌의 경우도 옹관은 2개 내지는 3개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기의 철기유물은 크게 농구와 무기로 나눌 수 있다. 농구로는 호미

30) 王增新, 〈遼寧撫順市蓮花堡遺址發掘簡報〉(《考古》64-6, 1964).

31) 朝中考古發掘隊, 〈尹家村〉(《中國東北地域發掘報告》, 1966).

32) 이순진·장주협, 앞의 책.

33) 東亞考古學會, 《豹子窩》(1929).

34) 朝中考古發掘隊, 앞의 책.

· 팽이 · 삽 · 낫 · 반달칼 · 철부 · 손칼 · 송곳 등이 나왔으며, 무기로는 창 · 단검 · 비수 · 과 · 활촉 등이 나왔다. 청동기는 철기에 비해 그 양이 훨씬 적으며, 대부분 무기류에 속하는 것으로 동촉 · 弩器 · 검과두 · 동모 등이 있다. 토기는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다.³⁵⁾ 첫번째로 태토가 곱고 회색이 기본인 유형, 두번째로 모래가 섞이고 승석문이 시문되었으며 돌림판을 쓴 흔적이 있는 유형, 세번째로 태토에 활석이 섞인 유형, 그리고 네번째로 전시기의 무문토기 전통이 유지되는 것으로 모래를 섞고 돌림판을 쓰지 않고 만든 토기 유형이 있다. 이 밖에 석기는 보고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연화보에서 만월형석도편이 발견되었고 그밖에 石斧 · 礮石 · 鎔范 등의 발견예가 있다. 그리고 명도전이 부장된 퇴장유적이 있다.

나. 기원전 3~2세기의 세형동검문화

기원전 3~2세기의 평양지역은 요동-서북지방과는 달리 세형동검문화가 지속되며 銅戈 · 비수 · 수레부속 등이 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 토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於乙洞토성, 雲城里토성, 淸山里토성 등이 알려져 있어서 위만조선 및 낙랑군의 지방행정 구역을 보여준다. 무덤으로는 움무덤과 나무곽무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석관묘나 적석총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시기와 차이를 보여준다. 이 토광묘유적들은 흔히 낙랑군의 토광묘와 혼동하기 쉬우나, 세형동검과 수레부속 등의 유물은 낙랑군 이전부터 존속했던 것을 보여준다.

토광묘유적에서 낙랑의 것과 위만조선의 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토광묘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이 지역의 토광묘의 변천을 크게 움무덤-나무곽무덤-부부합장된 나무곽무덤-귀틀무덤으로 보고 있다.³⁶⁾ 북한에서는 나무곽무덤을 기원전

35) 이 분류는 이순진 · 장주협, 앞의 책에 따른 것이다.

36) 남한의 견해를 보면 金元龍은 土壙墓-土壙木槨墓-木槨墓(낙랑시대 고분군)로 보았고, 林炳泰는 土壙木棺墓(움무덤)-土壙木槨墓(나무곽무덤)-大形木槨墓(木室墳, 귀틀무덤)이며 木槨墓와 木室墳의 차이는 單葬과 合葬에 따른 구조적인 차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 신용민은 木槨墓를 토광묘라는 개념에 종속시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묘제의 등장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2세기 중엽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³⁷⁾ 북한의 편년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위만조선시기에도 나무곽무덤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위만조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움무덤-나무곽무덤-귀틀무덤이 자체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기 위한 편년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³⁸⁾

북한에서 위만조선 이전 시기에 쓰여진 나무곽무덤으로 생각하는 대표적 유적으로는 台城里유적이 있다. 태성리의 경우 나무곽무덤 내지는 움무덤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토광묘라는 이름으로 발굴이 되었지만 유물상을 통해서 나무곽무덤 여부를 가릴 수는 있다. 태성리에 대해서 나무곽무덤의 일반적 특징인 화분형단지-배부른단지의 유형이 보이는 8·9·10·11·15·16호분 등은 비낙랑계의 유물로 위만조선시기의 것이라고 보고,³⁹⁾ 아울러 위만조선의 묘제 역시 낙랑시기에 남겨진 것과 비슷한 중국의 이주민이 남긴 장방형의 單葬목곽묘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⁰⁾ 그런가 하면 태성리를 낙랑설치 이후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서⁴¹⁾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의 논란을 정리한다면 과연 낙랑군 이전 즉 위만조선시기에 나무곽무덤이 존재했는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 문제는 단지 묘제만으로는 고찰할 수 없고, 유물을 통해서 고찰해야 할 문제이다. 고조선의 재래의 전통이 남아있는 대표적 유물로는 세형동검을 들 수 있다. 세형동검은 전시기인 비파형동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고조선 후기의 대표적 유물이다. 물론 세형동검은 낙랑군 설치 이후에도 일부 무덤에 쓰여지긴 했지만 퇴화된 형식으로

37) 최택선·이란우, 앞의 책, 112쪽.

이순진,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고고민속론문집》 8, 1983).

38)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0), 564~565쪽.

39) 田村晃一, 〈いわゆる土壇墓群について—台城里土壇墓群の再検討を中心として〉(《考古學雜誌》 50-3, 1965).

40) 田村晃一, 〈樂浪地域の木槨墓〉(《三上次男頌壽記念論集》, 1980).

41) 西谷正은 서북지방 토광묘에서 보이는 유물상을 전국시대의 영향이 보이는 A, 한나라의 영향이 보이는 B로 나누었는데, 한나라의 영향이 미치는 낙랑설치 이후에도 A식이 함께 공존했다고 보았다(西谷正, 〈朝鮮におけるいわゆる土壇墓と初期金屬器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3-2, 1966).

유물의 부장간에 부장된 것이다.⁴²⁾ 이 글에서는 기원전 3~2세기의 문화를 세형동검문화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세형동검문화는 전형적인 세형동검이 부장된 움무덤 2기와 나무곽무덤 1기를 포함하는 것이다(〈표 2〉·〈표 3〉).

〈표 2〉 움무덤의 편년표⁴³⁾

1 기	고산리, 정봉리, 천곡리	세형동검, 못비수, 세문경	기원전 5~4세기
2 기	솔피골, 반천리, 석산리	전형적인 세형동검, 세형동모, 과, 철부	기원전 3~2세기

〈표 3〉 나무곽무덤 편년표⁴⁴⁾

나 무 곽 무 덩	1기	전형적인 세형동검, 철부, 마구, 수레구, 화분형단지, 배부른단지	부덕리, 정백동96호, 갈현리 태성리9호	기원전 2세기中 ~末
	2기	쇠단검, 쇠장검, 철부, 마구, 수레구, 화분형단지, 배부른 단지	정백동1호·92호, 토성동4호, 복사리2호, 태성리8호, 운성 리3호	기원전 2세기末~ 1세기中
	3기	쇠장검, 고리달린쇠칼, 철제 농구, 약간의 마구, 수레구, 화분형단지, 배부른단지, 회 색단지, 백색단지	정백동80, 81, 36, 49호, 태성리6호, 운성리4호	기원전 1세기中~ 1세기末

기원전 3~2세기의 움무덤과 나무곽무덤 1기와의 관계를 보면 철기의 수가 증가했으며 움무덤 2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던⁴⁵⁾ 수레부속이 증가하고,

42) 대표적인 예로 귀틀무덤인 정백동 2호무덤을 들 수 있다.

43) 북한의 편년에 따른 것이다(안병찬,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이른시기 좁은못단검 관계 유적유물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8, 1983).

44) 이순진, 앞의 글.

45) 1956년 정오동에서 발견된 움무덤에서는 샷갓형동기와 전형적인 세형동검이 나온 예가 있으며, 북청군 하세동리에서 발견된 움무덤에서도 수레부속인 못방울이 발견된 예가 있다(사회과학출판사, 《고고학자료집》 4, 1974).

나무곽무덤 1기에서는 전시기에 보이던 세형동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형동검문화에 대해서 4기의 문화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⁶⁾ 이에 의하면 1단계는 세문경과 戈가 출토되나 수레부속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솔피골·반천리·석산리 등이 있다. 2단계는 마구와 수레부속이 출토되고 세문경과 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東大院里 許山·천주리·당촌무덤 등이 있다. 3단계에는 청동기와 철기가 비슷한 비율로 발견되고 4단계부터는 철기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 분류에서 기원전 3~2세기의 위만조선 및 그 관련 문화는 1·2단계이며, 3·4단계는 나무곽무덤의 사용이 본격화되는 시기, 즉 낙랑군 설치 이후의 문화 단계로 보여진다.

細形銅鐔는 길이가 짧고 너비가 넓은 1식, 길이가 넓고 너비가 좁은 2식이 선후관계를 보인다. 이 밖에 청동거울은 粗文鏡과 細文鏡으로 나뉘는데, 조문경에서 세문경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적 유물이라 할 수 있는 마구와 수레부속은 주로 뒷시기에 많이 출토된다. 이 밖의 청동유물로 검과 두·검집·동과·격창 등이 발견되었다. 철기는 주로 무기·마구·수레부속류가 주류를 이룬다. 도기는 주거유적의 경우는 발견예가 없어서 알기 어려우나 토광묘에서는 화분형단지와 배부른단지가 조합을 이루어서 발견된다.

이들 유적의 편년 근거는 상한의 경우 서북지방 출토인 을형·병형의 명도전 연대가 기원전 3세기이고 하한이 기원전 2세기 말인 점과, 나무곽무덤의 변천에 따르면 단장에서 부부합장으로 바뀌는 시기를 가지고 고조선의 멸망과 시기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 위만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 즉 고조선은 멸망할 때까지 요하유역에 중심지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면 청천강 이남지역의 세형동검 및 명도전의 분포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북한은 청천강 이남지역은 상대적인 독자성을 지닌 고조선 소국의 영역으로 해석하고, 낙랑유적 역시 위만에게 망한 고조선의 일족이 만든 것으로 본다.⁴⁷⁾ 이 점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46) 박진욱, 앞의 책.

47) 이순진·장주협, 앞의 책에서는 평양지역의 문화를 마한의 문화로 간주하였지만, 곧 발간된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수정되어 고조선의 일파가 세운 일소국으로 바뀐 이래 지금까지 이 설이 통용되고 있다.

3) 고조선의 사회경제

(1) 사회성격

기록에 등장하는 위만조선의 인물로는 衛滿과 右渠를 비롯하여 裨王 長・朝鮮相 路人・韓陰・大臣 成己・將軍 王峽・尼谿相 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위만조선의 행정 및 군사를 담당한 고위관료들로 보인다. 이 밖에 조선 상 노인의 아들 最라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상류층내에서도 신분의 세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위만조선에서 상류층과 평민으로 구분되는 세습 신분층이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당시의 인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록을 보면 歷谿卿과 함께 망명한 2천 호, 濊君 南閭의 28만 명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에 의해서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의 상태를 기록한 《漢書》地理志에 나타나는 요동, 현도, 낙랑의 인구는 <표 4>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위만이 멸망한 후로 상당수의 중국의 이민이 있는 등 여러 변동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위만조선의 인구수를 추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後漢書》의 경우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도군의 경우 호구당 27.1명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보이며, 세 군의 전체 인구수의 합계만 이미 180만 명이나 된다는 점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통계의 난맥상은 현도군과 같은 변방의 지역에 대한 정보가 소략한 탓일 가능성이 크며, 위만조선의 경우는 일찍이 중국과의 교류가 있어왔기 때문에 위만조선지역에 대한 인구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위만조선지역은 낙랑군지역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낙랑군의 인구수와 위만조선의 인구수는 대차가 없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서》지리지에서는 낙랑군이 25현 62,812호로 406,748명이라고 하였고, 《후한서》에서는 18성 61,492호 257,050명이라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위만조선 당시의 인구는 25~30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遼東郡과 玄菟郡 등은 아마도 위만조선 주위의 여러 소국을 포괄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한서》 및 《후한서》에 보이는 인구통계표

군이름	시 기	戶 數		人 口 數		縣·城數		懸當人口數		戶當 人口數	
		한 서	후한서	한 서	후한서	한 서	후한서	한 서	후한서	한 서	후한서
요동군	秦	55,972	64,158	272,539	81,714	18	11	15,141	7,429	4.9	1.3
현도군	기원전 107년	45,006	1,594	221,845	43,163	3	6	73,949	7,194	4.9	27.1
낙랑군	기원전 108년	62,812	61,492	406,748	257,050	25	18	16,270	14,281	6.5	4.2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예군 남려의 망명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군 남려의 예에서도 28만 명이 망명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구수가 나와 있다.⁴⁸⁾ 그것은 이들 지역이 한나라와 직접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나 수치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튼 낙랑군만의 인구를 위만조선의 경우와 대비시켜 본다면, 물론 추측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존재했음은 확실하며,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복잡한 사회조직이 이루어졌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기록에 나타나는 지도자들 밑에는 각각 800~3,000명 정도의 부족이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요즈음의 가장 기본단위인 리나 읍과 같은) 군집(band)의 단위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군집과 같은 가족공동체는 40~70명 정도의 주민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이러한 많은 인구를 지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로 법의 존재이고, 두번째로는 강력한 군사력의 존재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약 30만 정도로 추정되는 인구를 가진 고조선사회는 매우 복잡하였을 것이며, 법의 존재는 이러한 사회조직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4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濊와 그밖의 소국은 족장사회단계로 짐작되는데, 족장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거느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9) 이러한 최소단위(자연부락)는 公貴里의 발굴결과에서도 보인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출판사, 1977·1990, 116쪽).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고조선에는 箕子가 만든 八條禁法이 있었는데, 이것이 후에 한나라의 영향이 미치면서 풍속이 어지러워져 60여 조의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후한서》동이전 濊條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로 비추어 볼 때 위만조선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빈번해지면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제정되었다는 8조금법은 만민법(jus gentium)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위만조선의 국가형성 단계에 와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법령이 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늘어난 법은 8조금법처럼 공동체에서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만민법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인위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경찰력이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의 강제적 집행을 위한 군사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무기로 보아 충분히 갖추었으리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위만조선이라는 국가는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즉 뒤에서 설명할 장거리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며,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내부적인 긴장과 갈등은 곧 토지확장과 확보, 무력에 의한 인근 부족의 정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러한 정복은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으로 한 것이며, 특히 그러한 바탕이 된 것은 철제 무기의 사용인 것으로 보여진다. 철제 무기의 사용은 비록 고고학적 증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철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전문인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즉 원료확보를 위한 광산의 개발과 원료의 운반 및 제련에 전문직을 필요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위만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車馬具는 이들이 군사력으로 말을 이용했음을 나타낸다. 말을 키우고 먹이는 데 필요한 마장과 조련사의 확보와 같은 부수 조건도

50) 위만조선의 국가형성 및 무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崔夢龍, 〈韓國古代國家形成에 대한 一考察—衛滿朝鮮의 例—〉(《金哲俊博士華甲紀念論叢》, 知識産業社, 1983).

——, 〈古代國家成長과 貿易—衛滿朝鮮의 例—〉(歷史學會 編,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1985).

필요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군사를 두기 위해서는 다수의 군사를 먹이기 위한 잉여식량의 확보와 이를 위한 집약적 농경, 철제 농기구의 사용, 오늘날의 품앗이와 같은 농업협동체계의 활용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⁵¹⁾ 이와 같은 국가의 발달로 증가하게 된 인구는 사회를 복잡하게 했으며, 그에 따라 율령의 조목이 증가하고 군사력으로 통제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조공로 및 무역로의 통제 및 이에 따른 중간이익의 획득과 이를 운영하는 행정관료의 역할, 마차의 사용과 이에 따른 신분의 상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징병 및 징수가 있었을 것이며, 하부구조체제를 이루는 현과 같은 행정체계 및 특산물의 진상 등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체계이론에서처럼 서로 관련을 맺어 위만조선의 국가형성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는 인구증가, 전쟁, 토지의 확장, 전문직의 발생, 신분계층의 분화, 행정관료의 존재, 징세 및 징병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요소를 위만조선 관계 기사 및 그에 상응하는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정의」에 부합될 수 있는 「직업적인 계급」을 가진 「중앙관료 정부」와 「무력의 합법적인 사용」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위만조선은 초기에 주위의 유이민집단을 흡수해 나간 정복국가였으며, 衛滿-子-右渠-長의 4대 87년간 왕위를 세습하면서 더욱 완벽한 국가체제를 갖추었으리라 보여진다.

(2) 경제성격

고조선의 교역의 증거는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管子》輕重甲편과 《國語》에 나온 石弩歌를 들 수 있다. 《관자》에서는 관자가 齊나라 채상인 桓公에게 주변지역의 주요 특산물인 7개의 보배를 언급하는 가운데 發朝鮮의 文皮를 들고 있다.⁵²⁾ 그것은 조선의 물품이 교역을 통해서 중국에 수입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고조선은 아니지만 《국어》 권 5, 魯語

51)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灌溉시설의 설치도 생각할 수 있다.

52) 《管子》揆道篇 및 輕重甲篇.

下에는 공자가 고대의 肅愼이 西周 왕실에 진상한 石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進上’은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물자교역 즉 조공무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로 보아서 고조선시대에도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강상무덤에서 발견된 부장품 가운데 보배조개는 그 원산지가 동남아시아나 남부 중국의 아열대지방이어서 타 지역과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 및 고고학적 증거가 보이며, 본격적인 무역중심지의 역할은 위만조선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만조선은 《史記》조선열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漢나라의 外臣이 되어 한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한과 한반도의 예·진국·衆國 등의 사이에서 무역을 통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역중심지 역할을 행한 것 같다. 이러한 무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위만조선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만조선이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증거로 알 수 있다. 첫째로 중국과의 조공관계, 두번째로 명도전의 존재를 들 수 있다.

가. 조공무역

중국과 우리 나라의 조공무역에서 오고가는 품목으로서 삼국시대에는 우리 나라에서 果下馬·馬·楮矢·石弩·金·銀·珂·貢女·布·海物 등을 보냈으며,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받는 물품은 穢王之印 등의 印綬·朝服衣幘·腰弩·玉匣 등이었다.⁵³⁾ 이러한 목록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용되는 물품을 조공한 반면에 얻은 것은 인수와 의책 등 실제 생활보다는 신분의 상징에 필요한 것들임을 나타낸다.

《三國志》東夷傳 韓條에 보면 “...여러 韓國의 臣智에게는 邑君의 印綬를 더해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邑長을 주었다. 풍속은 衣幘을 입기를 좋아하여 下戶들도 郡에 가서 朝謁할 적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으며 자신의 인수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된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물론 이것은 위만조선이 아니라 더 늦은 서기 3세기경의 기록으로서 중국측에

53) 全海宗, 〈古代中國人の 韓國觀〉(《震檀學報》46·47, 1979).

서 한의 여러 신지들에게 읍군의 인수를 주고, 읍장에게도 각각 인수를 내렸으며, 한측에서도 의책을 좋아해 그러한 물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천여 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중국의 선진문화를 얻으려 하는 욕구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또 한측에서 얻고자하는 물품들은 당시에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서, 이러한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은 족장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뚜렷한 양상 중의 하나이다.⁵⁴⁾ 이러한 증거의 하나로서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인장이 있다. 그 대표적 예로 夫租蕤君墓⁵⁵⁾와 夫租長高常賢墓⁵⁶⁾ 그리고 위만조선시대보다는 훨씬 후에 만들어져 한반도에 유입되었으나 무역-조공관계의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증거품인 晉率善穢伯長 銅印⁵⁷⁾ 등을 들 수 있다.

신분을 상징하는 이러한 물품 이외에도 선진적인 철기문화가 도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철검과 활같은 병기를 들여오는 조공무역은 위만조선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토대가 되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위만조선은 곧 조공관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⁵⁸⁾ 조선을 통하여 당시에 기승을 부리던 匈奴를 배후에서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에 선진적인 철제 무기를 전해주었다는 가설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조선열전에서도 한나라와 위만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한나라와 주변의 여러 지역과 직접 통교하는 것을 위만조선이 막지않을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위만조선이 그런 선진적인 철기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명도전

후기 고조선 및 위만조선의 장거리무역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명도전을 들 수 있다. 만주지방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명도전의 유적 상황을 보면 대부분

54) 崔夢龍, 〈全南地方支石墓社會와 階級の 發生〉(《韓國史研究》 35, 1981).

55) 백련행, 〈부조예군의 도장에 대하여〉(《문화유산》 62-4, 1962), 61쪽.

이순진, 〈부조예군의 무덤에 대하여〉(《고고민속》 64-4, 1964).

56)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앞의 책, 166쪽.

57) 梅原末治, 〈晉率善穢伯長 銅印〉(《考古美術》 78, 1967), 263~264쪽.

58) 李鍾旭, 앞의 책.

城址나 주거지와 같은 생활유적에서 단지나 나무상자에 담겨서 담장 옆이나 외딴 곳의 구덩이에 묻힌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5〉).⁵⁹⁾

〈표 5〉 명도전 출토 일람표(한반도 및 요동지역)

번호	출 토 지	수 량	출 토 상 황	공 반 유 물
1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청상리	2,000여매	황철나무 껍질로 싸임	일화전 650매, 반량전 3매
2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2,700여매	항아리 안에 들어 있음	
3	자강도 전천군 운송리	5,000여매	나무 썩은 흔적	
4	자강도 전천군 길다동	4,000여매	바닥에 나무 흔적	
5	자강도 전천군 중암리	약 250여매	적석 안에서 발견	
6	자강도 위원군 용연리	약 400매	적석 안에서 발견	청동기 2점, 철기 2점
7	자강도 회천군 청상리	약 50매	적석 안에서 발견	
8	평북 동창동 리천리	약 50매	도로공사중 발견	

59) 표의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을 참조하였다.

藤田亮策, 〈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京城帝大文學會論纂》7, 1937), 1~88쪽.
李進熙, 〈戰後の朝鮮考古學の發展—初期金屬文化期—〉(《考古學雜誌》45-1, 1959),
46~64쪽.

이순진·장주협, 앞의 책.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앞의 책, 139~157쪽.

崔夢龍, 앞의 글(1985), 70~74쪽.

許玉林, 〈遼寧寬甸發現戰國時期燕國的明刀錢和鐵農具〉(《文物資料叢刊》3, 1980).

王嗣洲, 〈大蓮市三處戰國貨幣窖藏〉(《考古》90-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蜘蛛山遺址的發掘〉(《考古學報》
79-2).

曾昭藏·齊俊, 〈桓仁大甸子發現青銅短劍墓〉(《遼寧文物》81-2).

何賢武·王秋華, 〈古代錢幣〉(《中國文物考古辭典》,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3),
344~405쪽.

번호	출 토 지	수 량	출 토 상 황	공 반 유 물
9	평북 구장군 도관리	한상자 분량	적석 안에서 발견	
10	평북 철산구 보산 리, 등갑, 가도 일대	수백매		
11	평남 녕원군 온양리	수백매	채토중 발견	포전 23매
12	평남 덕천군 청송로 동자구	4,280매		일화전 91매, 포전 299, 철부 3, 철편 3
13	遼寧省 撫順市	40kg	단지 2개에 들어 있음	
14	營城子 鞠家溝	약 300매	단지 안	
15	營城子 大石橋 盤龍山	다 수	공사중 출토	
16	營城 大石橋 盤龍山	1매	진지공사중 출토	석침, 골편, 토기 등
17	豹子窩 高麗寨	10매	동아고고학회의 조사중 발견	포전, 반량전, 금전, 나무창, 동촉, 토기, 골각기 등
18	旅順勺家疃 牧羊城	3매	丁字形의 索溝에서 발견	반량전, 동촉, 철부, 철제, 석기
19	普蘭 店管内 大領屯城址	20매	대령둔성지의 시굴조사 중 발견	동촉, 대구, 철부, 철창 외 철제구
20	熱河 灤平縣 承德府	1,700매	진지공사중 발견	승석문토기, 철부
21	熱河 赤峰	1매		
22	瓦家店, 態岳城 蓋平, 奉天 등	4매	출토지 미상	
23	撫順 蓮化堡		주거유적	철제농구
24	전 평양, 전 남강 진 영변 도추면	소량 출토	미상	
25	灤平縣 張家溝	200斤	2개의 단지안	
26	朝陽 松樹嘴子	殘片		
27	遼寧 寬甸縣	200여편	구덩이 안에 철제농기 구와 함께 발견	철부, 철제 반월도 등의 철제농구
28	遼寧 錦西縣 邵集屯	690매	채토중 발견된 향아리 안에서 발견	

번호	출 토 지	수 량	출 토 상 황	공 반 유 물
29	평북 영변 신현면 도광동	30매		소형석실
30	평북 영변군 세죽리 1	7매	지표채집	
31	평북 영변군 세죽리 2	2,000여매	철기시대 3층의 문화층	30호 집자리 옆에 상 자에 넣어져서 보관 된 것으로 보임
32	遼寧 桓仁縣 大甸子	1매		銅刀 1, 管玉
33	吉林 輯安縣 歷年	완형 2점 (대부분 파편)	채토층 발견된 향아리 안에서 발견	포전, 반량전, 오수전, 화전 등
34	旅順口區 三灣鎮 蔣家村	400여매	채소구덩이를 파다가 지표하 50cm에서 발견	
35	瓦房店市交流島鄉 風鳴島	총 수천매	산비탈에서 발견	포전, 원전 등
36	吉林省 集安縣 太王陵 부근	匣도폐	단지 1개에 담겨 있음	포전
37	遼寧 錦州市 大泥窪	약 200매	단지마다 담겨 있음	여러 철기, 도기, 석기 등이 보임
38	遼寧 下麥窩	1매	구연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단지에 담긴 듯함	포전 약 400여매, 원전 (일화전?) 400여매
39	遼陽 沙峇房 1(渾 河內, 고근좌안)	200여매(磐折刀, 弧折刀 등)		신석기시대 토기와 석 기편이 공반
40	遼陽市 西北의 北園	12매(磐折刀)	단지에 담겨 있음	
41	遼陽城 西黃泥窪 頭台子	92매 (83점이 半切)	平地에서 발견	
42	遼陽 柳條寨 大新 庄村	다수	단지에 담겨 있는 듯함	포전, 원전 등
43	旅順 后牧城驛 樓上 3號墓	3매	1호묘와 섞이고 출토 위치도 불분명	적석총
44	赤峰 蜘蛛山 전국－한시대	3매		일화전 1매, 반량전 3매

발견된 유적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수습된 것으로, 해방 후에는 세죽리와 노남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중국에서도 근래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요령지방에서도 旅大·營口·鞍山·瀋陽·遼陽·撫順·朝陽·錦州 등지에서 발견되었으며, 근래에는 丹東지구에서도 많이 발견된다.⁶⁰⁾ 그런데 명도전유적은 대부분 지상에 표식이 없이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유구의 특징을 알아내기는 힘들다.

명도전이 주로 제작된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말로서 연의 소왕 때를 중심으로 한 주위와의 전쟁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며, 중국내에서는 趙와 동맹하여 齊와 전쟁을 하고 또 동북지역으로는 秦開가 동호와 조선을 침략하는데, 아마도 고조선지역에 명도전이 유입된 것은 이 진개의 침략을 전후한 시기로 보여진다. 명도전은 전국시대 말부터 진대에 걸쳐 북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요동지방과 한반도의 청천강과 대동강 및 압록강의 상류지방과 산간지방 즉 한반도의 서북부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만주 및 한반도와 상업적인 빈번한 왕래 즉 교역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만조선시기의 고고학적 문화인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의 여러 유적에서는 명도전·포전·반랑전 이외에도 고조선의 화폐라고 하는 일화전과 명화전⁶¹⁾이 나온다. 그러나 요령성 서북지방과 목양성지 근처에서 출토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도면이나 사진이 없어 불확실하다.

위와 같이 다수의 화폐 출토지와 문헌의 기록으로 볼 때 고조선에서 화폐가 사용되었음은 확실하다. 고조선의 8조법금 중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속죄하려면 50만 냥을 내야 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당시에 고조선에서 화폐제도가 널리 이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명도전이 출토된 유적은 대부분 화폐가 무더기로 단지속에 떨어져 외딴 곳에서 나온다는지, 또는 적석 안과 나무상자 등에 보관된 점으로 보아서 부장용이나 신분의 상징 또는 재화의 저축용으

60) 許玉林, 앞의 글.

61) 鄭德坤, 《中國考古學大系》3(1979), 286쪽.

북한에서는 난하유역 출토에 대해 그 예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고조선과의 교역 관계 중 일부가 흘러들어 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이순진·장주협, 앞의 책, 60쪽 및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책, 104쪽).

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중국과의 교역과정에서 획득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출토례가 많은 화폐가 연의 화폐인 명도전이라는 것은 후기 고조선과 위만조선시기에 고조선이 연과 교역을 활발히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출토지들이 산중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강을 끼고 있어서 이곳이 주변지역과의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는 견해도 있다.⁶²⁾ 여하튼 명도전이 무역의 중요한 수단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崔夢龍〉

62) 藤田亮策, 앞의 글(《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